

일상을 바꾸는 작은 목소리

2023 [문화자치학교 -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 협치워크숍 공작공작] 결과자료집



INTRO **들어가는 말**

- 문화도시 의정부가 시도한 '문화자치'의 시작
- 의정부의 문화자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PART 1. **도시를 바꾸는 시민들, 문화자치학교**

- 문화자치학교 1학년 1반 김문화의 일기 01p
- 문화자치학교 수강생이 제안한 정책 12가지를 소개합니다 07p
- 문화자치학교 수강생 이야기 19p

PART 2. **정책을 재밌게 감각하는 방법,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 [칼럼] 정책, 일상이 되고 축제가 되는 방법 21p
- 정책 셀러를 만났습니다 25p
- [시민기사]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직접 가보았다 31p
 - 의정부 로컬 Zoom-in,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서 시민을 만나다
 - 청소년의 기발한 상상력과 도시가 만나다!
 - 문화도시락(樂) 오프닝 콘서트
 - 2023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정책부스
- 기획자의 말 : 정책, 그 자체로 재미있을 수는 없을까? 47p
- 시민이 제안한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판매합니다 49p
- 우당탕탕 입사 10일 차 신입 담당자의 정책페스타 즐기기! ... 61p

PART 3. **우리 도시의 변화와 움직임, 한치위크삼 똥박똥박**

- 문화자치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 63p
- [칼럼] 일상의 불편을 긍정적인 변화로 바꾸는 시민의 힘 69p
- [기획기사] 시민이 함께 만든, 의정부를 변화시킬 정책들 71p

FINAL **마치며**

- 문화도시 의정부, 우리 내년에도 모이고, 떠들고, 공감해요!

들어가는 말

문화도시 의정부가 시도한 ‘문화자치’의 시작



안녕하세요, 문화자치 사업(문화자치학교,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 협치워크숍 ‘공짜공짜’)을 담당하고 있는 핑구, **이예진**입니다. 작년, ‘문화자치학교’, ‘333소셜픽션’, ‘문화자치정책마켓’을 진행했고, 올해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문화자치’가 당연한 문화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 2022 문화자치학교 >



< 2022 333소셜픽션 >

의정부는 작년,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함께한 수많은 이들의 애정과 열정, 노력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1년 차, 2023년 우리는 의정부를 더욱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머무는 동안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5년 뒤를 바라보고, 문화도시 의정부를 ‘내 역할이 있는 도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콘텐츠가 있는 도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도시’, ‘시민과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이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달려보려고 합니다. 매거진에는 시민의 역할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 ‘문화자치학교’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콘텐츠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협치워크숍 - 공짜 공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 **이예진**

['문화자치'가 뭐야]

‘문화자치’. 대체 무엇일까요? 작년 입사한 1일 차,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청소년 자치배움터 ‘의정부 몽실학교’(현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를 함께 만들고, 운영하면서 ‘자치’란 단어는 지겹게 들었는데도 ‘문화자치’는 새로웠어요. 문화면 문화고, 자치면 자치지, 이 두 개가 합쳐진 문화자치가 무엇인지는 문화자치 사업 2년차가 되어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자치활성화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그 사업 가이드에 따르면 문화자치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스스로 고유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의정부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도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며 도시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자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자치’ 아닐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직접 만들어요." 문화자치학교]

문화자치학교는 직접 도시의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는 정책적 역량 강화 과정이에요. 도시를 바꿀 정책의제를 가졌거나, 조례 제안에 관심 있거나, 정책 설계·디자인·제안 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어요. 문화자치의 개념을 함께 공부하고, 나와 내 주위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제안 과정을 배우며, 실제로 정책 제안서로 만드는 시간까지 가졌어요. 설명을 쓰다 보니, 너무 어려운 말이 가득하네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느꼈던 불편함과 해결해보고 싶었던 문제들을 찾아내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을 평소에 어렵기만 하던 ‘정책’이라는 도구로 풀어낸다는 점이 새로운 거죠. 올해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 동안 30여 명의 시민과 도시를 바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탐구하고, 더 나아가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정책페스타의 정책마켓에서 홍보했답니다!

["도시를 바꿀 정책은 어디에나 있고, 모두에게 필요하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누구나 정책을 재밌게 감각할 수 있는 ‘정책’과 ‘축제’가 결합한 문화도시 의정부만의 새로운 축제예요. ‘정책’이 마냥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일상에 맞닿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도시 의정부를 바꿀 ‘기회’라는 점을 시민들과 함께 느끼고 싶었어요. 누구나 모여 문화에 대해 수다 떨 수 있는 ‘문화도시락(樂)’,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 ‘정책경매’, 그리고 도시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로컬 Zoom-in’, 로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포럼과 특강 ‘로컬 Zoom-out’까지 5개 파트, 1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을 매개로 한 10,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어요. 특히 정책마켓과 정책경매, 어워드에는 시청, 유관기관, 의회까지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자치" 협치워크숍 ‘공짜공짜’]

협치워크숍 ‘공짜공짜’은 문화자치학교, 정책페스타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시청, 유관기관, 의회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올해는 정책페스타의 ‘정책마켓’에서 제안된 30개 정책과 관련하여 시청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 보았고, ‘정책경매’를 통해 매칭된 10개의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 -제안자 간담회, 의제 관련 공론장을 운영했어요. 의정부시청,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문화원과 의정부시의회까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고 계신 분들과 직접 필요한 단계와 절차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총 15번의 만남을 통해 400여 명의 이야기가 모였고, 그 이야기를 통해 7건의 조례와 5건의 사업이 진행 될 예정 입니다.

['문화자치'가 당연한 문화도시 의정부 만들기]

문화도시 의정부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과정인 문화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홍보하기 위한 정책페스타의 정책마켓, 정책경매를 운영해요. 정책페스타는 협치워크숍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실제로 시행 되도록 논의해요. 작년 정책마켓에서 제안된 ‘점자블록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자 : 서영진) 정책은 의정부시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재조명되었고, 이후 조례 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조례개정, 제정, 사업을 통해 펼쳐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문화도시 의정부는 도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의정부를 바꾸기 위한 정책 제안 과정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우리의 ‘문화자치’는 2년 차지만, 앞으로 문화도시 5년 이후 문화자치가 너무 당연한 도시가 될 날이 기대됩니다.



< 2022 문화자치 정책마켓 >



< 2023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담당자의 소망]

작년, 그리고 올해 2년 동안 문화자치 사업을 운영하며 어려모로 느낀 게 많아요. 청소년기 부터 22살까지 질리도록 듣고, 말했던 ‘청소년 자치’에서 벗어나자 바로 ‘문화자치’를 말하게 된 스스로가 웃기면서도 운명인가 싶었던 적 있었어요. ‘문화자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워킹파트너 따노, 놀다와 고민을 나누며 작년 문화자치활성화사업을 마무리했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정 절차에 정신없는 한 해였거든요. 1년을 마무리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년에도 또 한다면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문화자치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올해 더 잘 해내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니, 저는 이제야 ‘문화자치’가 무엇인지 조금 이나마 마음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담당자지만 1년 사이에 저도, 사업도 조금은 자란 것 같아 뿌듯하네요!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을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챙겨보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이전의 경험을 통해 저에게 많은 성장 포인트를 주셨던 마중, 제가 항상 생각 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짚어 주시고 꼭 필요한 의견을 담아주셨던 놀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든든한 문화자치 파트너로 함께해주신 따노, 저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 사야 차장님, 문화자치 사업을 통해 저를 만난 수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수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식구들, 재단 식구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의정부의 문화자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문화자치’를 만들어가는 워킹파트너의 시선

손석환



“정책이 뭔데? 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안녕하세요. 문화자치 워킹파트너 **따노, 손석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문화자치학교’라는 이름으로 문화도시 의정부의 문화자치를 위한 영역이 만들어진 후, ‘정책페스타-정책마켓’을 거쳐 ‘협치워크샵-공작공작’ 에 닿으며 문화자치를 위한 큰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들요!

여러분은 자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적 의미로는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표현되는데요, 뭘 다스린다는 말일까,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는 고민도 결정도 실천도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려운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가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단체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내 삶과 가장 밀접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일을 내가 더 잘 알까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더 잘 알까요? 내 집 앞 보도블럭이 깨져서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과연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알까요?

저는 자치의 힘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사자성을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내 당사자성에 입각해서 마을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문제라면 해결해야하고 좋은 것이라면 더 좋게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찾는 것, 고민하는 것, 수다 떠는 것,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 등등 이 모든 과정을 당사자인 우리가 해보자는 것, 저는 자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는 작년, 예비문화도시일 때 문화자치학교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각자 자기의 관심사, 즉 당사자성에 입각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했던 6주간의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강렬했거든요. 그 경험이 저에게 준 확신도 하나 있어요.

아, 이거 된다. 시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이 그 확신이었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킵!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2016년,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연구라는 자료에 문화자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로 성장 및 발전하는 문화도시를 통해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국가 미래발전체계 마련”으로 정책비전을 설정했고 “이를 구현하는 사업계획으로 사회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는 장소로 도시기능을 활성화 한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즉, 문화자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거죠. 2018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문화중심의 지역 자치능력을 높이는 사업”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목표가 설정되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2021년에 문화자치 기본조례를경기도가 제정했거든요. 그 조례에 문화자치는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문화자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 이라고요. 개개인의 활동이 지역의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 되고 그것이 시스템이 될 수 있게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것. 상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올해 문화자치학교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24개 법정 문화 도시의 사업계획서를 다 살펴보았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용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2019년 1차 법정문화도시부터 2022년 의정부를 포함한 4차 법정문화도시까지. 각 사업 계획서에 제가 위에서 정의한 문화자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보니깐요, 저는 좀 으쓱했답니다. 왜냐면 문화자치를 이렇게 힘주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정말 없더라고요! 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충남 공주시에 문화도시 조례 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제주 서귀포시에 문화원탁과 마을별·문화권별 문화계획수립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비슷하게 포럼개최, 자율예산제 시행, 라운드테이블 진행 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례나 사업을 고민하는 구조는 별로 없고, 우리 의정부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답니다!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 의정부가 ‘문화자치에서만큼은 전국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이 매거진을 읽는 여러분은 느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덕분이니깐요.

그렇게 올해도 문화자치 영역은 시작되었고 문화자치학교와 정책페스타와 정책마켓을 거쳐 협치워크숍까지, 의정부의 문화자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30개의 시민정책이 제안되었고, 그중 10개 정책이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와 만나 논의되었고, 그중 3개의 정책이 후속 공론장에서 다뤄지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 까지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조례로 발의된 것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문화자치를 이끌어가는 시민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력을 뒷받침하고자 의지를 모은 행정력 덕분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송산동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306 보충대 앞쪽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산과 들이라는 8살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의정부에서 제 삶은 아내와 아이들의 관심사와 당사자성에 많은 부분이 맞춰져 있답니다. 주말 이면 미술도서관과 과학도서관 등 도서관 인프라를 누리고 송산사지에 가서 자연을 접하며 살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또 함께 하며 의정부에서 삶과 일,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삶을 제가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자치의 측면에서 당사자성을 지녀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도시로 개발되는 송산권역(민락동과 고산동을 포함하는)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별로 명확하게 나뉘지는 문화를 어떻게 극복해볼까, 재개발로 뭔가 세련되어졌지만 작은도서관을 비롯, 손쉽게 갈 수 있는 시설 부족, 돈을 꽤 내고 가야만 하는 아이들 관련 문화·놀이시설, 마을에서 뛰노는 마을이 되기 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그로 인한 위험 요소 등등.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늘 결론은 자치로 귀결 됩니다. 당사자성을 지닌 시민들을 만나자, 그 시민들과 수다 떨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럼 같이 해 나가보자. 결국 자치로 귀결 됩니다.

저는 시민력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파편화되는 사회, 핵개인화되면서 파괴되는 공동체, 독자 생존해야 하는 사회,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 차별을 조장 하는 정치 등등 미래를 상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시민력을 믿습니다. **시민들의 상상력과 그 상상에서 나오는 영동한 계획의 힘을 믿습니다.** 시민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그런 시민력을 바탕으로 문화자치의 선두주자로 다른 도시들이 배우고 학습하러 오는 도시가 되기를 꿈꿉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문화자치라고 하는 영역을 좀 더 무겁고 깊게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더 쉽고 가볍게 접근해야 할까.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 해야할까.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할까. 이런 고민들이요. 아마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고민을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정부의 문화자치는 더욱 단단하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과정이 될테니까요. 같이 해보시렵니까?

문화자치를 특성화사업으로 설정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문화자치를 떠올리면 의정부가 떠올려질 수 있도록, 시민력과 행정력이 만나 제대로 된 자치와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자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치합시다! 문화자치, 우리가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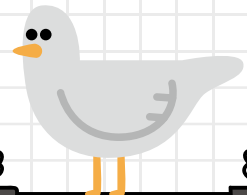
PART 1



도시를 바꾸는 시민들
문화자치학교

도시를 바꾼 시민들,

문화자치학교 이야기



그거 알아?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야!

문화자치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3. 4. 1.(토) ~ 4. 20.(목)

교육기간: 2023. 5. 6.(토) ~ 7. 15.(토) / 6회차

일시: 토요일 14:00~17:00 (*새부녀종합타운 대강당에서 강의)

유인대상: 도시를 바꾼 정책의제를 거론거나 조례제정 과정에 관심있는, 정책 설계-디자인-제안과정에 관심있는, 정책적 역량강화를 원하는 시민 25명(60)

(*인원 초과 시 내부 선정 절차가 있을 수 있음)



“내가 원하는 세상을
직접 만들어봐요”

의정부를 바꾸어갈
문화자치학교
커리큘럼

구분	일시	교육내용을 확인하세요?	시청 참여의 중요성?
1회차	5/6(토) 14:00~17:00	QT - 수업을 소개하기, 문화도시-문화자치의 개념 공유 및 수업 소개	
2회차	5/13(토) 14:00~17:00	정책의제발굴 단계별(1)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3회차	5/20(토) 14:00~17:00	수요자 발굴 및 타 부서 및 시민사회 연계	수요자 발굴 및 타 부서 및 시민사회 연계
4회차	5/27(토) 14:00~17:00	정책의제발굴 단계별(2)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시민사회 및 타 부서 연계
5회차	6/3(토) 14:00~17:00	정책의제발굴 단계별(3)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시민사회 및 타 부서 연계
6회차	6/10(토) 14:00~17:00	정책의제발굴 단계별(4)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시민사회 및 타 부서 연계



“내가 원하는 세상을
직접 만들어봐요”

도시의 주인인 우리가 직접
도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봅시다!

수강신청: <https://bit.ly/culture-school>

수강생 필수활동: 도시를 바꾼 의제를 담은 정책 아이디어 설계 디자인-제안
정책 아이디어 관련 공론화, 견정회 기획 및 운영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단계별(1)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단계별(2)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단계별(3)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단계별(4)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수강생 혜택: 수강료 지급(100%이상 출석)
문화자치 정책의제발굴 우수 참가팀(각각 1팀) 지원금 지급
2024 문화자치학교 및 문화자치 정책의제발굴 지원금 지급 가능

문의: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담당부서 031-850-5127

신청을 망설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런 주제는 어때?

- #예술인복지
- #장애인
- #다문화
- #기후위기
- #청년자립
- #아동
- #젠더
- #도시환경
- #문화약자
- #이주노동자
- #노인
- #경력단절

신청을 망설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거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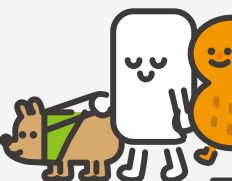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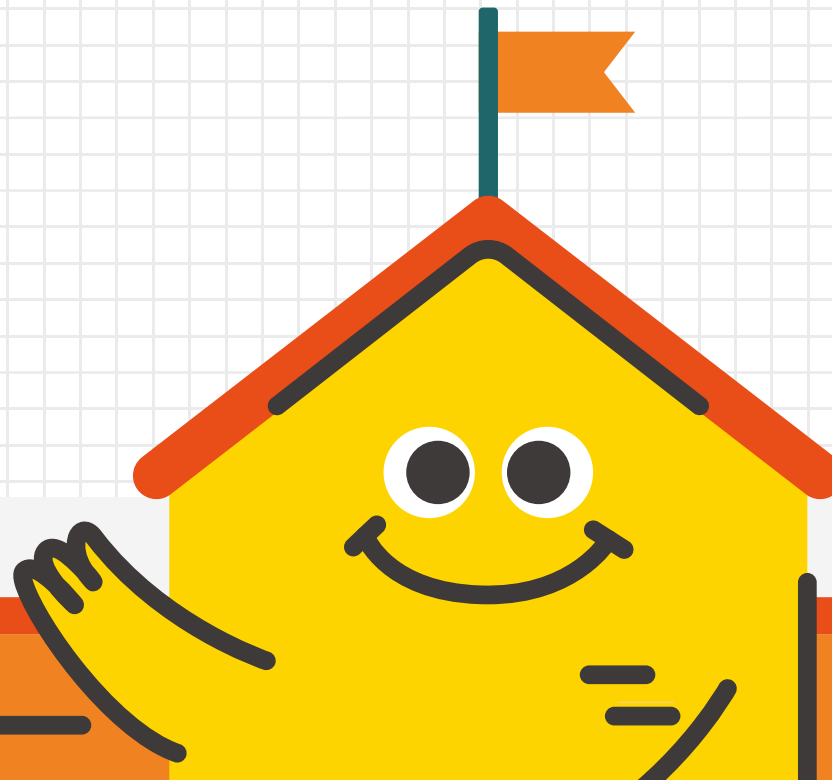
<2022 문화자치 정책의제발굴 우수 참가팀>에서 공론화 단계별(1)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시민 참여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단계별(2)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시민 참여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단계별(3)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시민 참여
문화도시 정책의제발굴 단계별(4)영역별 동거민 관심 분야 선정: 시민 참여

문화자치학교

기간 2023년 5월 ~ 7월

내용 6회차 과정 운영

성적 누적 참여자 103명, 수료생 14명





일시	2023년 5월 6일(토) 14:00 ~ 17:00
장소	민락동 웰니스메이트
날씨	맑음(마음날씨 : 흐림)



문화자치학교 1차시가 있는 날이다. 작년에도 했던 문화자치학교지만 기분이 좀 다르다. 몇 가지 변화를 줘서 그런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약속 시간 두 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약간의 어색함과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시작이라는 설렘이 모여 오늘을 이루고 있다.

든든한 내 친구, 짝꿍 핑구가 문화자치를 소개한다. 핑구는 어쩔 말을 저렇게 잘할까. 부러워하며 핑구의 설명을 듣는다. 시장님도 오셨다. 실물로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이다. 모니터 속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 연예인 보는 기분이기도 하다. 당신이 쓰신 책을 선물로 주시기로 했다.

오늘은 관계 맺기가 주 프로그램이다. 2010년에 고민하며 만들었던 첫인상 자기소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제안했다. 어색하지만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다행히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오늘의 핵심 프로그램은 우주피스 헌법을 차용한 문화도시 의정부 헌법 만들기. 우리가 생각하는 의정부에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를 정리해본다.

나온 의견이 재미있다. 모르는 사람과 편하게 소통할 권리 / 안전할 권리 / 욕을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도시 / 5분 안에 헬스장에 갈 수 있는 도시 / 모든 건물에 경사로가 설치되는 도시 등등이 나온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자치학교가 있다. 아, 뿌듯해. 마지막은 작년 문화자치학교와 정책마켓을 통해 실제 조례가 제정된 “점자블록” 사례를 서영진 선생님이 발표해주셨다. 감동이 있다. 나의 문제의식이 우리의 문제의식이 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다. 이렇게 펼침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난 1차시가 마무리되었다. 2차시를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다행이다!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14:00 ~ 17:00
장소	민락동 웰니스메이트
날씨	비(마음날씨 : 완전 흐림)



날씨만큼 마음이 흐리다. 연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몇 명이 참석하는지 생각을 안 할 수 가 없다. 전체 참가인원의 50%밖에 오지 않았다. 날이 꾸질꾸질해서 그런가... 기운이 좀 빠진다. 왜냐면 특별히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서 오늘의 진행자를 섭외했기 때문이다. 내 좋은 친구 원영씨. 조원영 활동가를 특별히 모셨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온 사람이 의미 있는 시간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2차시를 시작하였다.

풍선이 그림과 글을 써가며 오늘의 관계 맺기를 하니 참여한 학생들의 표정이 편해지는 게 보인다. 다행이다. 그래, 우리가 즐거우면 되지! 오늘의 목표는 정책을 제안하고 학습하기 전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바라는 것을 추진하면 혹시라도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등. 그동안 ‘이게 필요해’, ‘이걸 원해’ 같은 생각만 많이 해 봤는데 내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2차시가 마무리되었다. 3차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 제발, 제발!





일시	2023년 5월 20일(토) 14:00 ~ 17:00
장소	민락동 웰니스메이트
날씨	맑음(마음날씨 : 맑음)



오늘부터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조례반’과 ‘사업반’으로 구분하여 분반 수업을 진행했다. 조례반은 의정부에 시스템을 만드는 반, 사업 반은 의정부 곳곳에 역동을 일으키는 반으로 구분하였다. 조례반은 내 좋은 친구이자 멋진 정치를 하는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이 맡아주기로 했다. 사업반은 내 스승이자 동료인 장희진 파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맡아주기로 했다. 든든한 두 사람이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사업반에서는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조례반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의정부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없다면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타 지역에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좋아, 가보자고!



일시	2023년 6월 3일(토) 14:00 ~ 17:00
장소	민락동 웰니스메이트
날씨	맑음(마음날씨 : 아주 화창함)



오늘은 4차시 진행하는 날, 기분이 아주 좋다. 학생들의 생각이 구체화 되는 게 보여서 그렇다. 이번 주에는 두 명에게 연락을 받았다. 각자의 관심 주제에 대한 연락이었는데 일상에서도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기쁜 마음을 안고 4차시가 시작 되었다.

오늘 사업반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날이다.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상상, 계획을 한다. 조례반은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각자 주제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문구를 넣을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포랑포랑하다. 내가 생각하는 정책이 조례로, 사업으로 구현되는 상상이 학생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한다. 이제 약 한 달가량의 숙성기간을 거치고 7월에 종강식을 하기로 했다. 한 달 뒤,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하루다.





일시	2023년 6월 24일(토) 14:00~17:00
장소	민락동 웰니스메이트
날씨	맑음(마음날씨: 조마조마했다가 차분)



조례반이 한 번 더 모였다. 아무래도 조례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도움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발적으로 한 번 더 모이기로 했다. 멋진 학생들!

아주 구체적으로 내 정책을 파는 시간이 되었다. 내 정책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개정하는 게 좋을지 새롭게 제정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해보고 문장을 어떻게 넣을지도 고민해본다. 태블릿과 노트북을 옆에 놓고 검색과 수정을 반복하니 세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제 문화자치학교가 딱 한 번 남았다. 사실상 학습의 시간은 오늘로 끝이 났다. 6차시에는 각자의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걱정과 우려, 기대가 겹쳐 조마조마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간 식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성가가 나온다.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그제서야 마음이 차분해졌다. 노래 제목은 문화자치학교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온 땅 위에 노래가'였다. 우리 의정부에 우리의 정책이 온 땅, 곳곳에서 발휘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6차시를 준비해 보기로 한다.



일시	2023년 7월 15일(토) 14:00~17:00
장소	민락동 웰니스메이트
날씨	흐림(마음날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화창함)



드디어 6차시가 왔다. 학생들을 위해 아침 일찍 파주 출판단지에 다녀왔다. 책 선물을 하고 싶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도망치고, 찾고'라는 요시타케 신스케의 그림책을 골랐다. 일상 소중함을 위해 도망치고 찾고를 반복하는 그림 속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드디어 종강식! 학생들은 각자가 준비한 사업과 조례안 발표를 했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이것을 위해 내가 고민한 내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구현되는 의정부를 상상해본다. 1차시, 우주피스 헌법을 만들었을 때 상상하던 모습이, 6차시 정책발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궁금하다. '어려웠을 거야, 혼란스럽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뿌듯할 거야'. 이 생각이 나만의 착각이 아닐길 간절히 바라보는 하루다. 문화자치학교 6차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정책페스타 정책마켓에서 이 정책이 시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후속 워크숍까지 이어지며 정책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이 이어질 때 학생들은 한층 더 성장할 것이고 의정부는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해 본다.

문화자치학교 일기 끝!

문화자치학교 수강생이 제안한

정책 12가지를 소개합니다



1.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제 안 자 : 김용우

제안 배경 : 65세 이상 인구가 의정부 인구 전체의 16.72%를 차지합니다.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 문화 행사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5월 또는 10월에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를 개최해 기초검진(혈압, 혈당, 체성분 등), 체력(유연성, 근력), 집중력(체력경연)에 따라 '건강한 어르신'을 선발합니다. 대회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치매, 흡연, 치아, 기초보건, 건강검진, 마음 건강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련 행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 부산, 부여, 대전, 서울의료원, 예산, 보령 등 상당수 지역에서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본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했고, 14개 기관과 의료기관이 26개 건강 지표를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을 측정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내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행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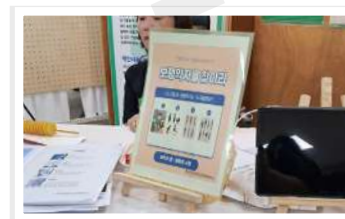
2.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제 안 자 : 박진, 김미란

제안 배경 : 문화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문화도시를 위해, 기본권으로써 '보행권'이 확보 되어합니다.

주요 내용 : 의정부시 내 모든 문화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턱을 없애는 등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문화재 근처 비포장도로에 빗길 깔개 등을 설치하고, 공연장, 문화원, 영화관 등 문화시설 내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 부산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2019년 '보행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2)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3)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정책은 130개소에서 110억 규모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1개->16개), 보행 혁신 TF 상설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제 안 자 : 정홍권

제안 배경 : 전 연령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디지털 문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현대 사회 다양한 공간에서 키오스크 보급이 확대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문화 수준을 향상합니다. 디지털 시민 강사 양성, 1:1 현장 교육 운영, 디지털 기기 보급, 장기적 디지털 행정조례 제정을 통한 디지털 문화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례 :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자나 노인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역량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터넷 세금 납부 등 다양하고 필수적인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로등 번호 띠 설치

제 안 자 : 김선호

제안 배경 :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로등 인식번호, 잘 활용한다면 치안, 방법, 사고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 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는 문가로등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가로등 인식번호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360도 돌려서 부착합니다. 어디서나 가려 지지 않고 사람들이 가로등 인식 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해 위기 상황이나 사고 시 위치를 긴급 하게 알려야 할 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높이 2.2~2.4m, 눈에 띄는 색상 등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례 : 서울시는 '도로대장시스템'으로 가로등을 관리하고, 시설물에 주소정보를 적용해 도로 인근에 혼재된 시설물 위치를 통일화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가로등 관리 번호를 좌표로 만들어 경찰 및 소방 출동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울산 남구도 2023년 5월까지 109개소에 좌표 표기를 완료 했습니다.





5.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제 안 자 : 서영진

제안 배경 :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나 업체 현수막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활용되지 않아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폐기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주요 내용 :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문화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회성 현수막 폐기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게시 제한 횟수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폐현수막의 경우,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으로 재사용 되게 합니다.

참고 사례 : 공주시는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폐현수막과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폐현수막을 공동 청소에 사용하는 대형폐기물 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을 산업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자재 제작, 장바구니 제작에 폐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현마을 운동 사랑방 모임

제 안 자 : 강현욱

제안 배경 : 재개발이 결정되면 마을이 방치됩니다. 지역 주민, 예술가 등 지역에 당사자성을 가지고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방치된 공간과 시간을 메우는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재개발이 확정된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구성합니다. 방치된 마을이지만, 기록될 가치가 있는 마을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 종촌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종촌-가슴에 품다’를 통해 마을 장례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작가들의 예술품과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행사로 만들어 나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재개발 지역에서 찍은 예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재개발 추진 전까지 지역 전시회로 만듭니다.





7.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제안자 : 김세현

제안 배경 : 퇴근 후, 방과 후, 일과 후. 지역 내 다양한 모임이 열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닫혀있는 민간 유휴공간을 공공 생활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의정부에 생활문화공간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의정부 내 공공시설로 개방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나옴쿠(24시 개방, 파티, 모임, 행사 등 가능한 복합공간), 5차원 공간(파티, 행사, 워크숍 등이 가능하며 소규모 모임도 가능), AULA 스페이스(세미나, 모임, 파티가 가능한 공간으로 옥상 활용 가능), DAY OFF (세미나, 모임, 원데이 클래스 등에 적합한 공간). 이러한 민간공간들을 발굴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참고 사례 : 인천, 대구, 속초, 과천, 군산 등에 작은문화공간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생활문화공간기능확대 조례 등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8.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제안자 : 김경민, 이규현

제안 배경 : 의정부시 행복로와 청년이 만나는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의정부 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의정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축제를 즐기고, 다른 지역 청년들도 의정부에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및 창업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로, 민락동 상권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중심 행사, 축제 개최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의정부 만의 청년 테마거리로 인식되도록, 상권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례 : 창원시와 진주시는 총 1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청년 문화 공간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일명 '핫플레이스'지만, 활동반경과 콘텐츠가 단조로워 청년 유입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노원구 또한 시민 대상 청년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팀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9.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

제 안 자 : 최은희

제안 배경 : 가족 누군가의 고생, 수고가 아닌 구성원의 성향, 취향이 모두 반영되는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부모와 아이가 한 공간에서 놀고, 문화를 누리는 가족 친화형 공간조성이 이루어지면, 가족 소통의 공간으로도 사용될 것 입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화 정책’과 발 맞추어 가족도서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대부분 도서관은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가족’ 특화 도서관을 위해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례 : 제주 가족도서관은 건립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과 인테리어 TF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학부모, 어린이 모두의 의견을 반영했고, 도서관 이름도 공모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10. 예술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의정부

제 안 자 : 이순주

제안 배경 : 의정부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문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의정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문화 예술 예산 사용에 대해 ‘시민이 감시 및 감사할 권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술가, 예술 향유인, 예술교육가가 예술지망생이 함께 예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조례를 근거로 의정부시 문화 예술후원 조례를 제정 하여 다양한 후원제도, 경비지원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근거로 의정부시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됩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개인을 지원하는 조례개정도 추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1. 의정부 문화시민영화제 ‘휴머니즘’

제 안 자 : 임효준

제안 배경 :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법정 문화도시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문화의 가치를 아는 의정부, 민주주의 문화시민들의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영화제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문화도시의 성장동력으로써, ‘인간 중심 영화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문화자치학교, 협업 레스토랑, 횡단지캠프 등 문화도시 의정부의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영화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별도 조례가 없기에 조례상으로 명시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DMZ 영화제와 연결한다면, 경기 북부 대표 영화제로써 자리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참고 사례 : 수원사람들 영화제는 시민 9명이 기획에 함께 참여하면서 청년을 주제로 한 영화 7편을 상영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관이 부재한 수원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영화를 선정하면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김해시민영화제에서는 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의 결과물로 시민주도의 시민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9편과 영상 미디어 센터 선정 1편 등 10편이 상영되었습니다.



12.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마련

제 안 자 : 조혜영

제안 배경 : 현재 시민,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과 시민 사이 소통 또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 : 정책마켓을 통해 소통, 갈등, 의정부 등 단어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수렴합니다. 시민이 의정부에서 살며 겪는 문제를 조명 하고, 이후 행사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참고 사례 : 서울 중구에서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해 주목받았습니다. 구민 간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 이웃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구가 직접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갈등 관리팀이 면담을 통해 갈등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 폭력을 당하는 구민을 발견하거나 홀몸 어르신을 발견하는 등 위기 가구를 조사할 수 있는 효과도 발견했습니다.



문화자치학교 수강생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화자치학교
수강생
[정홍권]입니다.

저는 디지털 강사이자 공익활동가, **정홍권**입니다. 송산노인복지관, 홈플러스 문화센터, 디지털 배움터에서 시니어분들에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즐겁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민락 공동체, 디지털 봉사단, 미래사회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마을활동과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고 싶은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디지털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치학교를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의정부시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앞서는 디지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관련 조례'가 절실합니다. 많은 디지털 관련 조례가 필요하나, 우선 가장 디지털 문화의 기초적인 디지털 문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젊은 세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에게도 절실합니다. 시니어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주면 시니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즐겁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많은 디지털 문화 조례들이 제정되고, 실행되어 의정부시가 디지털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하길 바랍니다. 정형화되고, 행정화된 시민의 의견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문화자치학교 같은 환경이 문화시민을 만들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자치학교에 참여하여 자율적이며,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면 더 많은,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자치학교를 만들고, 운영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민 공론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의정부시가 디지털 문화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자치학교
수강생
[이순주]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이순주**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협의체인 문화시민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문화자치학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정책, 조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내가 과연 정책을 제안할 수가 있을까 가우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책마켓에서 여러 정책을 제안하던 시민들을 보면서 '내년에 나도 이 자리에서 나의 의견을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올해의 자치학교는 사업팀과 조례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어떻게 조례나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는 조례팀으로 합류했고, 그 과정에서 엉성하지만 간절한 생각들이 어떻게 조례 형태로 제안될 수 있을지에 대해 차차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와우~ 이게 되네...!'하는 마음이었어요. 따노 손석환님과 신정현 전 경기도의 원님의 자문으로 의정부와 타 도시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개별적인 의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가면서 제가 직접 제안하는 조례안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즐겼습니다.

문화자치학교 수강생 이야기

총 6차시 자치학교 과정의 마무리는 조례나 사업안을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에 속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지! 모두의 의견이 보석 같았고,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열정이 빛나던 느낌을 아직 잊을 수 없네요. 의견들 대부분이 정책페스타 부스로 발표되는 걸 보고 감격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마 부스 참여를 못하게 되어 더욱 감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역시 문화자치학교를 참여하고 있을 제 모습이 그려집니다.

p.s) 개인적으로 문화자치학교에서의 하루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이를 데리고갔는데, 이사야 차장님이 우리 아이와 잠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고,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오후 시간엔 늘 복싱장에서 보냅니다. 가족의 건강도 잡고 나의 의견도 담을 수 있었던 **문화자치학교!**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직접 만들어봐요”

문화자치학교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문화자치학교

 **생생한 후기 바로가기**



문화자치학교

 **생생한 현장 바로가기**

PART 2



정책을 재밌게 감각하는 방법,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정책을 재밌게 감각하는 방법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이야기

#특별전

#문화도시락(樂)

#정책카페

1st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Everywhere X Everyone
2023. 8. 25. ~ 8. 26.

기간 2023년 8월 25일~ 26일

내용 5개 파트, 14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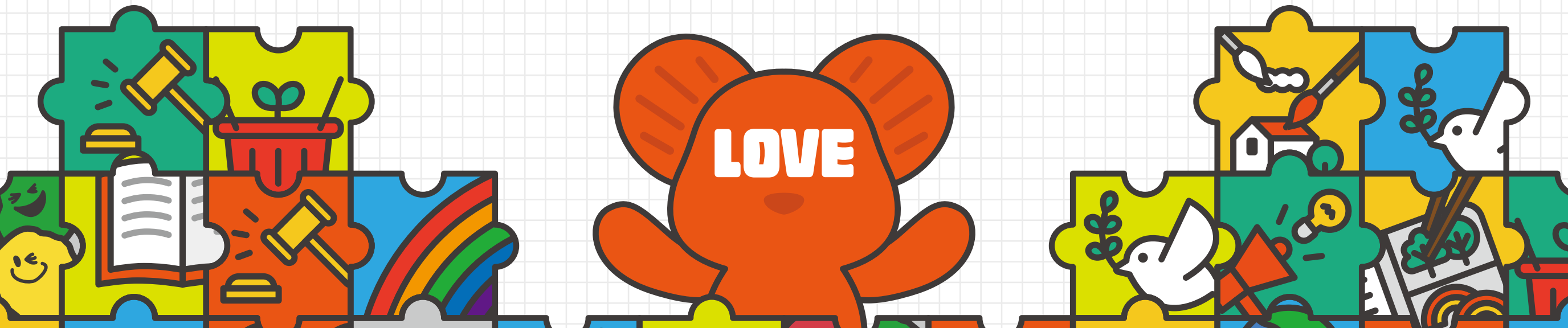
성과 행사 관람객 9,924명

#정책마켓

#정책경매&어워드

#로컬 Zoom-in

#로컬 Zoom-out





칼럼

정책, 일상이 되고

축제가 되는 방법

소홍삼 |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장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잊어버릴 것이다. 내게 보여줘라. 그러면 기억할지도 모른다. 나를 참여시켜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이제는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 문구는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수동적 타깃’에서 ‘프로슈머(prosumer)’로 탈바꿈하고 있는 ‘참여의 시대(Age of participation)’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비단 마케팅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교통, 환경 보전, 교육, 문화, 경제 등 그 도시의 모든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정책이야말로 ‘참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도로를 걷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학교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모든 순간을 도시와 함께한다. 반복 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에 도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일부 행정가나 단순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시민은 정책을 통해 나와 우리가 살아갈 만한,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결국 정책도 시민이 필요하며, 시민도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책은 더 이상 어려운 주제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닌,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하지만 정책이라 하면 어렵고 딱딱하고 우리 일상과는 거리감이 있는 영역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장에서 장을 보듯이, 축제를 즐기듯이 편안하고 즐겁게 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질문이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의 시도로 이어졌다.

‘정책’이 ‘축제’를 만난다면?

‘정책’의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고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발화 형식이 아닌 감각을 하는 방식이 고안되어야 했다. 아이디어는 ‘정책이 축제를 만난다면?’, ‘정책이 축제와 같다면?’이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상상과 아이디어를 ‘마켓’이라는 형태로 평소 친숙한 일상과 접목하고, 신명과 놀이성을 바탕으로 한 ‘축제’ 플랫폼으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새로운 방식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제1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시민들이 ‘정책’을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일상에 맞닿아 있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슬로건도 이런 의미를 담아 ‘Everywhere X Everyone - 나와 모두의 문화도시’로 정했다.



피크닉 같은 오프닝, 문화도시락(樂)

축제의 오프닝 프로그램은 <문화도시락(樂)> 이었다. ‘문화도시의 즐거움’과 ‘도시락’의 중 의적 의미를 담아 친근한 네이밍으로 피크닉을 떠나듯 가볍게 문화도시 행사를 즐기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지역과 사회 이슈를 주제로 강연과 콘서트가 결합한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진양혜 아나운서와 방송인 줄리안이 ‘예술과 환경’이라는 문화도시락 메뉴(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의정부 시장도 ‘정책 바리스타’로 출연하여, 시민들의 관심사인 미군부대 공여지 ‘캠프레드클라우드(CRC)와 디자인시티를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둘째 날 정오에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로비에서 열린 <정책카페>에서는 3명의 ‘문화 바리스타(의정부문화재단 대표, 동네 책방 운영자, 지역 청년예술가)’가 각자의 메뉴(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정책을 사고팔고, 경매에 부치고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의 핵심이자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만든 정책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정책마켓>이다. 정책마켓은 ‘정책마켓 부스’, ‘정책경매’, ‘정책어워드’와 ‘청소년 도시메이커스’,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정책마켓>의 부스는 마트에서 장을 보듯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고파는 시장이었다. <정책마켓>은 환경·평화, 예술·문화, 안전·지원, 세대·지원, 공간·거리 등

5개 섹션, 총 30개 팀의 부스로 진행되었다. 제안자는 어르신·주부·회사원·자영업자·청년·학생 등 다양했다. 정책을 파는 ‘정책셀러’들은 열정과 애정을 담아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홍보하였고, 정책상품을 구매하는 시민들도 마켓을 즐기고 공감하는 정책에 의견을 보태며 진지하게 참여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된 만큼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단위의 시민들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방문한 시민은 “아이들에게도 정책상품(과일 모형)을 직접 골라 담아보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정책경매>는 ‘정책을 좀 더 재밌게 감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미술 작품을 경매에 부치는 장면이 떠올랐다. ‘아! 정책들을 경매에 부쳐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된 ‘정책경매’는 정책을 경매에 부친다는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였다. 경매에 나온 정책상품은 총 10개 팀이었다. 입찰자로는 의정부 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시 관계자들 총 30명이 참가하였고, 일반시민 100여 명도 참관하였다. 경매는 입찰자들에게 소정의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그 금액 내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0개의 정책상품이 모두 낙찰되었으며, 특히 시의원들이 경매 낙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유쾌한 상황들과 재미난 장면들이 연출되어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재미를 선사했다.



정책페스타의 엔딩 프로그램은 <정책어워드>였다. 정책셀러 3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판매 왕 1~3등’, ‘따뜻한 상상’, ‘상상 그 이상’, ‘정책경매 대상’ 등을 시상하였고, 청소년 도시메이커스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상상’, ‘기발한 상상’, ‘기대 이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정책을 제안한 모든 시민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지역 미술인 참여하는 아트 페어 <미술에 진심 3030>, <로컬마켓>, 학술 세션으로 <문화정책×포럼>, <도시인문학×특강>으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나와 모두의 문화도시, 소외되지 않는 삶’이란 주제의 특강도 열렸다. “‘정책’이 ‘축제’를 만났을 때!”라는 정책페스타의 흥분 슬로건처럼 도시의 정책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고, 축제처럼 누구나 가볍게 즐기며 실천할 수 있다.”라는 기획 의도에 대해 다행히 고무적인 평가들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 모두로부터 “정책이 축제로 충분히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고,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인정받았다. 한 전문가는 “정책마켓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독특한 유형의 도시문화축제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축제”라고 평가기도 했다.

시민의 목소리가 도시의 미래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시민들에게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던 정책이라는 이름에 축제라는 플랫폼을 얹어 시민들 바로 앞으로 가져오고 문턱을 낮춰 문화자치 시스템에 한

걸음 다가간 의미 있는 시도였다. 아울러 <정책페스타>가 지닌 또 다른 미덕은 ‘정책마켓’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사전에 ‘문화자치학교’ 과정에서 학습하며 시민들이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만드는 과정을 깊이 있게 경험(문화자치학교를 3개월간 운영)하게 했다. 그 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은 정책 아이디어와 조례 등을 연구하여 그 결과물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생산자로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정책마켓에 참여했다. 정책페스타 이후에는 ‘협치워크숍’을 거치며 시의회, 시청 관계 부서, 시 산하기관이 나서서 이들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한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문화자치학교 - 정책페스타 - 협치워크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발적인 교육이나 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문화자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정책을 테마로 시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의 축제였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이 일에는 누구나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시민들은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자 전문가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며, 바로 정책의 열쇠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성민희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시각 디자이너이자 시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저는 다층적인 결합과 다중적인실험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개나 민화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을 통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줄레주와 같은 타일 아트에서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형식적 매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거나, 시선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로서의 응시성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론가이자 인문학자이기도 한 다른 작가님과 함께 언어와 이미지의 콜라보에 대한 실험적 작품 활동에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정책셀러를 만났습니다.

예술 문화 | '의정부 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지역 바우처'
정책 셀러 성민희

Q. 정책마켓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일단 의정부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와중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만, 정작 관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특히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정부에서 예술적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적게나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책마켓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정책마켓을 통해 판매하신 정책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의정부 관내에 있는 지역 상점과의 연계를 통해서, 재료비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먼저 예술가들이 재료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의정부 관내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Q. 시민이 직접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한다는 문화도시 의정부 문화자치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제안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안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과 정책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부스에서 다른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라는 것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하는가'가 관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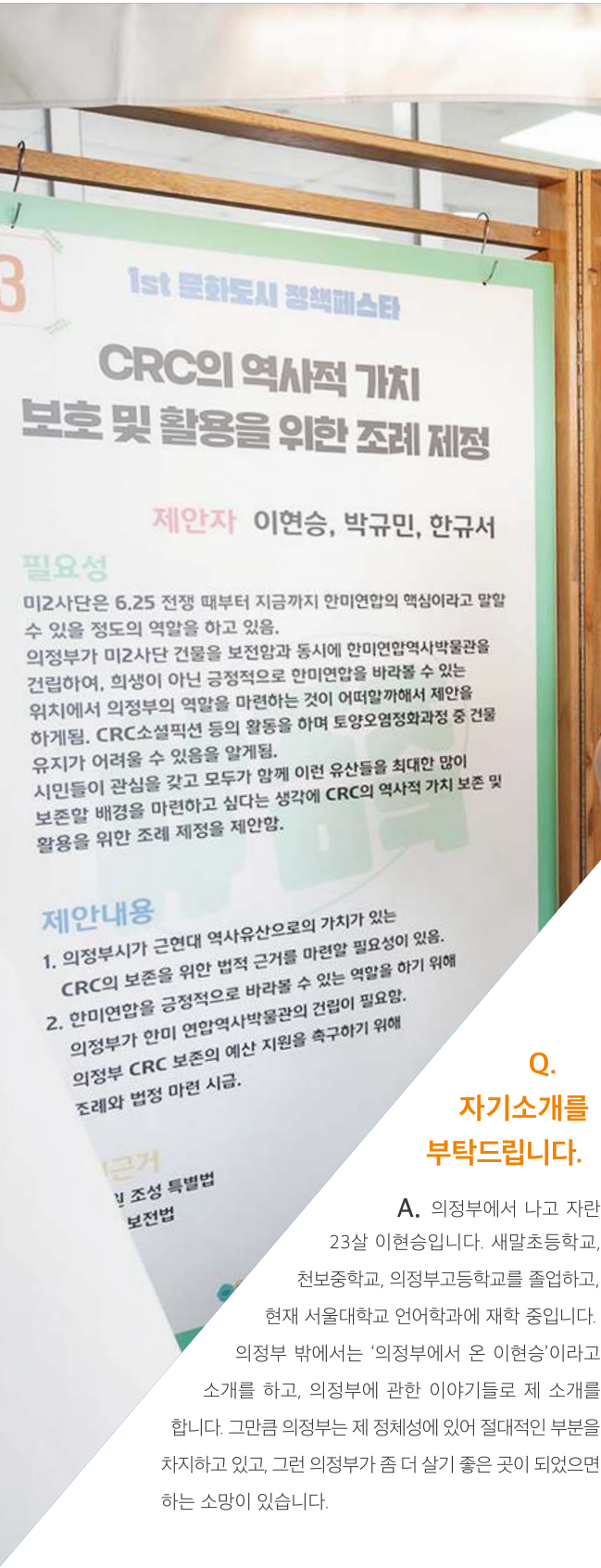
Q. 정책마켓이 제안자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A. 정책마켓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활동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이후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다시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책마켓 행사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내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계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안된 정책들이 언제나 제안자를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정책마켓에 참여한다고 하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선뜻 내어주신, 의정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의정부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같이 전시했습니다. 그 작품을 시민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의정부에 작가나 화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의정부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책셀러를 만났습니다.

환경 평화 | ‘CRC의 역사적 가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례제정’ 정책 셀러 이현승

Q. 정책마켓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원래도 우리 시에 정말 관심이 많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올해 처음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심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책페스타와 정책마켓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관심사와 정책 제안을 시민과 관계자에게 전달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정책마켓에 참여하고, 정책경매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정책마켓을 통해 판매하신 정책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A.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카투사로 근무 했습니다. 우연히도 제가 속해 있던 부대가 몇 년 전 까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주둔했던 미2사단 본부대대였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정부의 흔적들을 접했습니다. 미2사단과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의정부시 청년 하루 명예시장으로 근무하며 현안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고, CRC 소셜픽션에 참여하며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했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의정부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의정부에서 나고 자란 23살 이현승입니다. 새말초등학교, 천보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의정부 밖에서는 ‘의정부에서 온 이현승’이라고 소개를 하고, 의정부에 관한 이야기들로 제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의정부는 제 정체성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의정부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Q. 시민이 직접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한다는 문화도시 의정부 문화자치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주변인들에게 문화도시 의정부와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해보던 ‘시민참여’와 ‘문화도시 의정부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정말 다르고, 그 다름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정책마켓은 앞으로 더 많은 의제를 발굴할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의정부의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Q. 정책마켓이 제안자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A. 의정부에 더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 의정부는 저와 제 친구들에게 ‘떠날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서울에 나가 살겠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부터도 이상하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그 생각이 계속되다가, 올해 정책마켓에 참여하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의정부를 떠나기보다는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 친구들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책마켓과 정책경매는 제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 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Q.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팀원으로 흔쾌히 참여해 준 규민이와 규서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갑작스레 도움을 구했는데도 정말 저만큼이나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물론 셋 다 부스 운영 경험이 없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함께 공부하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각자 대학에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과 모여 의정부시 문화자치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좋은 친구들에게 다시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셀러를 만났습니다.

안전 지원 | ‘의정부의 미래를 빛내는 청소년을 위한 의정부의 밤길을 밝히는 안전 통학로 환경 조성’
세대 지원 | ‘의정부시 청소년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간 거리 | ‘의정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자유 공간 확대’

정책 셀러 차세대위원회

Q. 정책마켓을 통해 판매하신 정책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임원진은 ‘의정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자유 공간 확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청소년들이 편히 쉬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청소년 문화·여가 공간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안전복지분과는 ‘의정부 청소년 안전 통학로 환경조성’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의정부 광동고등학교의 어두운 통학로로 인하여 한 학생이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는 신원 미상의 출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연계분과는 ‘의정부시 청소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의정부 청소년 연합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 참여와 교류 활동 등 주체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는 의정부시 대표 청소년으로서 관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확산시키는 참여기구입니다. 의정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정책 모니터링 활동, 정책 캠페인 진행, 청소년 참여 예산제안 토론회 등을 진행했고, 1년 동안 모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다듬어서 행정에 제안하는 활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Q. 시민이 직접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한다는 문화도시 의정부 문화자치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과 경험으로부터 나온 정책 제안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색다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를 시작으로 정책촉제가 좋은 선례로 남아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Q. 정책마켓이 제안자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A.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던 장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정치인들에게 소외되는 1순위 계층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도 의정부 시민으로서 마음껏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Q.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분과별 정책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부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었던 늦은 저녁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품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전에 모여 연습까지 했습니다.

정책마켓에 시민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의 정책을 제안하며 힘을 얻을 것인지, 여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 연습을 했던 것이 실제로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친구들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연습한 덕분에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시민들에게 바랍니다. 차세대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들을 창의력과 잠재력, 그리고 무한 가능성을 품은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민기사]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직접 가보았다.

의정부 로컬 Zoom-in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서 시민을 만나다.

문화도시 에디터 김다정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 방문한 에디터가 직접 그 현장을 담았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가득 채운 모습이 인상 깊다. 우리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마냥 무겁고 어렵지만은 않아보인다. 체험과 관람을 통해 문화도시와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로컬 Zoom-in' 프로그램이 특히 눈에 띈다.

1. 도시캔버스 #마음껏 #상상하는 #의정부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광장 한 곳에서 진행된 도시 캔버스는 의정부에 있었으면 하는 문화, 의정부 도시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까지 상상을 더해 우리만의 그림을 담은 캔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의 손글씨로 완성되는 캔버스에 문화도시 의정부에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있었다.



2. 문화도시의정부 아키움 #문화도시의정부 #기록을 #한곳에

원형전시장 내에 마련된 아키움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의 의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을 담은, 문화도시 의정부의 기록을 만나볼 수 있는 아카이빙 룸이다. 문화자치, 문화시민, 문화실험, 문화재생, 문화관문, 문화거점이라는 여섯가지 카테고리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전시해두었다. 한쪽 벽면에는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의 역사를 연표로 정리해두었고,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작성해서 붙여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 되어 있었다.



3. 미술에진심 3030 #지역작가 #30인 #작품소장부

미술에 진심 3030은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와 협업하여 지역작가 30인의 작품을 장르나 크기에 상관없이 30만원에 판매하는 미니 아트페어로, 누구나 지역작가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특별 전시이다. 서양화, 한국화, 민화, 문인화, 캘리그래피, 서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원형 전시장 내부에서 진행되는 로컬마켓과 분리된 1·2 전시장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전시 작품을 관람하며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았다.



4. 로컬마켓 #의정부 #체험부스 #모여모여

원형전시장 내부와 야외광장에는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 공간운영자,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기관 등이 모여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체험 부스 프로그램이다. 실내와 야외를 모두 포함해 총 21개의 부스가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로컬 Zoom-in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정책페스타'는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A. 부모님과 같이 왔는데, 의정부의 행사를 참여하고 의정부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오게됐어요.

Q. 그럼, 지금 로컬마켓 부스 체험 같은 것도 하셨나요?

A. 저 앞에서 식물 키우는 거(일회용 컵 업사이클링 화분으로 변신!!!)랑 아키룸 전시장을 구경했어요. 방금 와서 아직 많이 못했어요.

Q. 아키룸 포스트잇에는 뭘 적었어요?

A. 의정부를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세요!

Q. '정책페스타' 행사들 어떤 것 같아요?

A. 체험 같은 것도 재밌고, 의정부 문화도시의 역사도 알게 되고, 무료로 좋은 행사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Q. '정책페스타'는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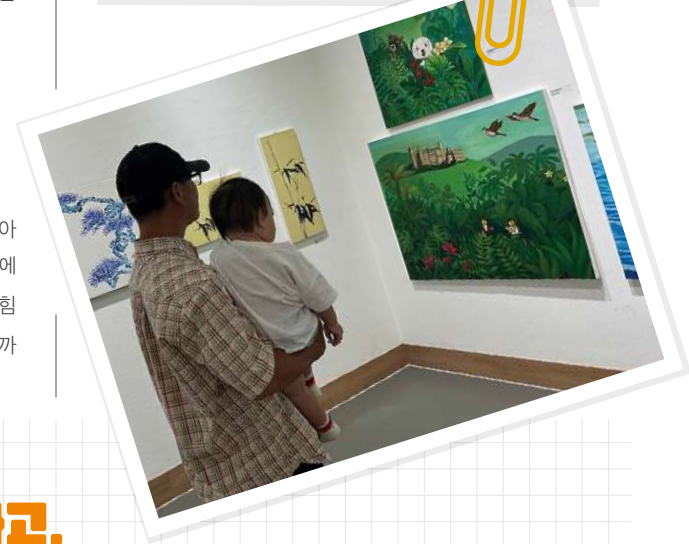
A. 지인이 전시회를 한다고 알려주셔서 검사겸사와 봤습니다.

Q. 부스 체험이나 다른 공간들도 가보셨나요?

A. 집사람과 아이들은 저 안에서 체험하고 있고, 저는 전시 관람했습니다.

Q. '정책페스타' 행사들 어떤 것 같아요?

A. 그림 전시(미술에 진심 3030)가 잘되어 있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인사동 같은 곳에 나가서 전시를 봤었는데, 요즘에는 주위에서 볼 환경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관람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멀리가지 않고 동네에 나와서 보니까 좋아요. 작가와 작품들이 다양하고 재미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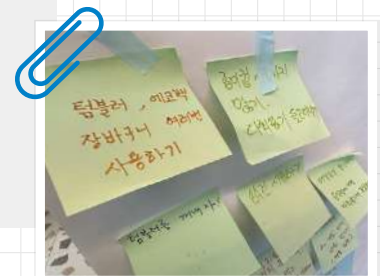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책페스타를 위해 의정부
예술의전당을 방문한 시민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번져있었다.**

쉽고 재밌게 문화도시 의정부의 정책을 감각할 수 있는 정책페스타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시민들의 에너지와 참여는 의정부가 문화도시라는 이름 아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막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의 미래가 시민들에 의해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Interviewer. 문화도시 에디터 김다정

Interviewee. 용현초등학교 5학년 박한결 어린이 / 40대 중반,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시민기사]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직접 가보았다.

문화도시 에디터 강민지



2023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 ‘청소년 도시 메이커스’가 모였다. 청소년 도시 메이커스는 의정부시 초, 중,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정책을 이야기 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모여라! 의정부에 살고 있는 청소년! (이서은)

“의정부 관내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창구가 필요해요. 청소년 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살고 싶다! (원준우)

“로봇으로 자동화되는 도시 어떤가요? 로봇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코딩 교육을 확대하고 로봇과 함께하는 의정부를 상상 해봐요!”

미소가 생기는 도시 (임채은)

“청소년의 손으로 꾸미는 도시! 거리에 작은 전구를 설치하고 글을 적거나 그림을 그려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어요.”

반가운 쓰레기통 (하정담)

“길을 걷다 쓰레기통을 만나면 쓰레기를 버리고, 포인트를 적립해요.”

의정부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함윤서)

“의정부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역 내 버려진 공간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청소년들의 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내 친구 학교는 어디에? (홍예찬)

“고등학교에 오고 나서 다른 학교에 배정된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요.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곳이 우리의 배움터 (이수한)

“공자 왈,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배움터가 될 수 있어요. 교육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의 미래를 빛내는 청소년을 위한 의정부 밤길을 밝히는 안전 통학로 환경조성 (정연서)

“밤길에 집에 가기 무서워요.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밤에 혼자 집에 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귀가 안전 동행 서비스 제도’ 어때요?”

지구를 지키는 착한 전동 수레 (임푸름)

“의정부에 약 57개 고물상이 있는데요, 고물상에 전동 수레를 배치하고 대여하면 고물상으로 수레를 나르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기계(로봇)가 지키는 우리 등굣길 (박수빈)

“녹색 부모님 대신 기계로. 야외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을까요?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부모님의 수고도 덜 수 있어요.”



‘청소년 도시 메이커스’는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활발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

[시민기사]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직접 가보았다.

문화도시 에디터 최희선



문화도시락 오프닝은 의정부 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 공연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진양혜 아나운서의 '도시와 문화, 예술',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CRC와 디자인도시'에 대한 강연, 방송인 줄리안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강연 및 짧은 대담, 그리고 유사랑퀀트의 '마이웨이' 재즈공연으로 구성되었다.

1. 김동근 의정부시장 'CRC와 디자인도시' 강연 중

“현재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큰 정책 방향은 디자인문화 클러스터라 생각합니다. (중략) 그 공간은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이자 나아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같이 사용하며 가치를 높여가야 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채워가야 할 것인가는 시민분들이 주신 아이디어들로 하나하나 구체화해갔으면 합니다.”



2. 진양혜 아나운서 '도시와 문화, 예술' 강연 중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상상하라, 의정부 문화도시' 네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중략)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된 이유에 대해 펜실베이니아의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문화는 그 수용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품화되어 시장에 나왔다. 그래서 그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볼 때 의정부가 전략적인 작전을 구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하는 문화도시가 빠르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3. 방송인 줄리안 '기후와 환경' 강연 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조금은 듣기 싫어요. 마치 조금만 뒤로 미뤄지면 좋을 것 같은 아침 알람 처럼 기후 위기도 오늘 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더 많은 정책이 나오고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진양혜 아나운서와 방송인 줄리안 대담 중



진양혜 :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줄리안 :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좋아요' 한번 누르고 '공유' 한 번 하는 활동이 '환경 관련 방송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환경을 위해 한 번쯤 써주세요.

진양혜 : 채식, 장단점이 있을까요?

줄리안 : 우선 단점으로는, 사람들과 쉽게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장점이 너무 많아요, (중략) 요새는 채식이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사는 이태원 쪽에서 대체육을 사용한 중국 음식을 자주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게 할 수 있는 환경 실천, 채식 말고는 없어요!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의 오프닝 콘서트는 '문화도시락(樂)'이라는 이름처럼 문화도시의 즐거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콘서트였다. 우리의 삶과 일상에 맞닿아 있는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이자 기회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닌 나의 일상과 삶을 바꿀 재미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23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정책부스

문화도시 에디터 이수현
한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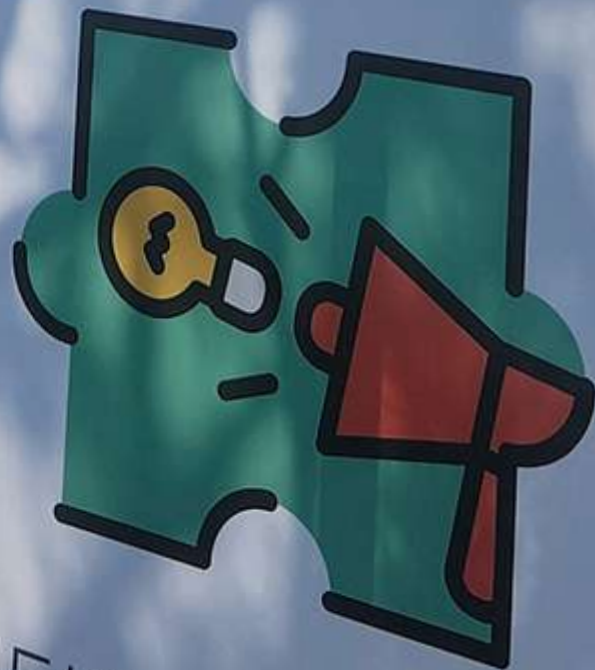


정책마켓

8.25(금) ~ 8.26(토)

14:00 ~ 18:00

지하 다목적실



우리 도시에 필요한 정책
홍보, 판매 및

1. 의정부시 청소년 통합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통합네트워크 구축 부스에서는 미션이 한창이다. 두 사람이 그려진 패널에 청소년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응원과 건의사항을 적고 붙여나가며 다리를 만들어 그들을 연결되게 만드는 미션이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정부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은 그들의 뜻이 미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정책을 제안한 차세대위원회 지역 연계분과 황현수, 최부경, 장지은, 이관우 셀러는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청소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97.2%나 된다”라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역이용해 청소년 통합네트워크로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형성을 유도하고 의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많은 정책과 문화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의정부 청소년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2. 의정부시 청년문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의정부시 청년문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 일부 개정’ 부스에서는 의정부에서 청년 축제를 한다면 어디가 적합한지 패널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다. 청년 김경민, 이규현 셀러는 주변 지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의정부시에 규모 있는 청년 축제를 열어 의정부시의 청년은 물론,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그 가족까지 유입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축제를 제안했다. 김경민 셀러는 “어느 시대나 청년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끄는 자들”이라면서 “문화를 이끌고 유행을 선도하는 청년들이야말로 의정부에 문화의 바람을 불어올 핵심 주축이라고 생각해 청년축제를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3. 의정부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개최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의정부가 건강해지려면 노인들이 건강해야 하고 그 토대를 잘 가꾸어야 한다. 노인은 모든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전체 인구의 17.19%(2023.06)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정부시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 응원하며 더불어

가족과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 ‘의정부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개최’ 부스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김용우 셀러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부스에 모인 노인들은 셀러가 제안한 이 정책이 노인들에게는 필요한 정책이며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정부시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뉜 판넬에는 찬성 쪽에만 수많은 스티커가 붙고 있었다. 김용우 셀러는 “노인이 많은 고령 사회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풍부한 도시”라며 의정부가 마주한 고령사회에 대한 개념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풀이했다. 더불어 “도시는 창의력과 활력을 가진 젊은 세대들과 고령인구와의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 자산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정부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 모두의 놀이터(아이 돌봄 정책)

의정부 시민대학 온마을지킴이 학과의 정성희, 정영화, 박은희, 안은숙, 최경화 셀러가 제안한 ‘모두의 놀이터’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시작됐다. 돌봄 자리가 없어 자녀를 학원에 맡기는 시간이 많은 요즘,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다른 누구에게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없는 상황까지 더해져 엄마는 물론, 아이도 힘겨운 현실이다. 누구보다 이러한 고충을 잘 아는 엄마들이 모여 만든 정책 제안이 바로 ‘모두의 놀이터’다. 돌봄 정책에 관심이 많아 의정부 시민대학 온마을지킴이 학과에 등록해 정책 제안까지 참여하게됐다는 정성희 셀러는 “자녀를 키우며 내 꿈은 잊었지만 다른 엄마들의 꿈은 지켜주고 싶다”라며 “자녀 양육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마을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5. 청년 문화동행 추진을 위한 청년 문화 바우처 지원 정책

‘청년 문화동행 추진을 위한 청년 문화바우처 지원 정책’ 부스에서는 청년 관련 OX 퀴즈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청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는다. 청년의 시기를 지났던 사람들마저 ‘청년을 잘 몰랐네’ 하는 말을 내뱉는다. 의정부 청년협의체 이유정 셀러는 “의정부시 인구 중 약 21%인 청년들이 문화예술, 공연 관람, 체육활동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여 의정부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이 촉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 예술가로 활동 중인 황다원 셀러는 “청년 예술가가 의정부에 아주 많이 포진해 있다” 라면서 “바우처 카드가 의정부의 청년 예술가의 발굴과 생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정님 셀러는 “의정부에는 문화를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청년 문화바우처로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도와 기회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6. 재개발로 인한 시공간적 마을 방치, 슬럼화 해결방안 마련. 예술로 가꾸다. - 닳마을운동 사랑방모임

의정부에는 재개발이 결정되거나 추진 중인 동네가 많다.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십 년 가까이, 재개발이 예정된 공간은 방치되어 슬럼화가 된다. 강현욱 셀러는 “방치된 재개발 지역에서 이러한 모임을 종종 시도해봤는데, 마을 주민들과 여러 업체가 연결된 일이라 모임을 하는 그것조차 어려웠다” 라면서 “마을 주민과 예술가들이 모여 방치된 공간을 관리 하고 가꾸는 모임을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강현욱 셀러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닳마을 운동 사랑방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닳마을 운동 사랑방모임은 방치된 재개발 지역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모임이다. 특히 이번 정책마켓은 그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내일을 바라본다. 오늘을 살아보는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고 있으니 말이다” 라고 말하는 강현욱 셀러는 “방치된 재개발 지역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닳마을운동 사랑방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 일과 후 안전한 운영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조례제정

현대 사람들에게 문화 활동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과를 마치고 밤에 의정부로 돌아온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곳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 김세현 셀러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증 절차를 통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업주는 CCTV, 스마트키, 무인경비시스템 등 이용 장치를 시에서 지원 받아 경제적,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의정부시 전체가 지원을 통해 문화·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라며 민간 시설의 개방으로 시민과 공간운영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8. 의정부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자유 공간 확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에는 13개의 법정동 중 4개소에만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서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이 편히 쉬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만큼 의정부에 청소년 공간이 시급하다.” 차세대위원회(함윤서, 편한나라, 이시은, 윤성현)는 청소년의 어려움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장소는 행복로다. 행복로에는 43개(행복로 면적(km²)당 30.28개)의 유희업소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로에서 청소년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의정부에 청소년 공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원하는 공간, 별거 없어요’라고 쓰인 모형을 보여주는 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 편한나라 셀러는 “청소년은 특별한 시설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유희공간을 활용해 청소년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속히 열리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9. 소풍 길 맨발 걷기를 위한 조례제정 및 환경조성

산을 좋아하는 장정화 셀러는 매번 산에 갈 때마다 자발적으로 플로깅을 하는 환경지킴이다. 장정화 셀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에 갈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바로 시민을 위해 맨발로 땅을 디디며 걷는 길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정화 셀러의 부스에는 의정부시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다. 만약 의정부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어느 곳에 조성하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발 모양의 스티커를 나누어주며 선택하게 하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정부 시민들은 직동공원에 많은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장정화 셀러는 “맨발 걷기 후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이 함께 조성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부용산 소풍길 초입에 무지랭이 계곡이 있는데 맨발로 걸은 후에 발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10. 공공형 어울림 청년 세어하우스 조성 방안

“변기 옆에 바로 싱크대가 있는 공간에서 사는 청년의 집을 미디어에서 접한 적이 있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열악한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의 모습도 안타까웠다. 열악한 환경에 살게끔 허용하는 우리나라 구조의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최저의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의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형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주지희 셀러가 제안한 ‘공공형 어울림 청년 세어하우스 조성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필요하다. 주지희 셀러는 “반환된 CRC 미군기지 내 장교 숙소와 장병 숙소를 비롯해 빈집, 노후주택 등 의정부에는 세어하우스로 재탄생할 좋은 공간들이 많다” 라면서 “이는 공공형 세어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시설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 청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의정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11.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은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제안한 정책이다. 이선주, 최의훈,

고순옥, 최정후 셀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부스는 노인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나아가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한 산책이나 돌봄의 어려움은 물론, 반려인의 죽음으로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등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선주 셀러는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수의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산책과 양육을 도와줄 반려동물 도우미 파견이 필요하다. 나아가 홀몸 반려인의 죽음으로 남겨질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도 고민 해봐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정책이 정립되어 노인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평생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12. 의정부 가족 소통 공간 조성

최은희 셀러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다. 의정부에서 가족들과 어딜 가려고 해도 막상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모두가 힐링 하러 갈만한 공간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최은희 셀러는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가족이 많다. 단지 가족과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가족과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 싶다”라면서 “가족 소통 공간은 가족의 유대감 강화와 다른 가족과의 문화 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가족 모두를 위해 제도적으로 꼭 마련 되어야 할 장소”라고 강조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정책부스

문화도시 에디터 이소현
한지혜

“이 정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매 부탁드립니다.”

의정부문화재단이 주관한 정책페스타 행사 중 정책마켓 부스는 시민이 직접 낸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자리이다. 방문객들은 무형의 ‘정책’을 구매함으로써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표현할 수 있다. 각 부스에 비치된 과일 모형을 장바구니에 넣어가면 구매로 간주한다.

1. 배려와 존중, 선진시민을 위한 의정부 시민영화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화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효준 셀러는 “의정부시에서 시민영화제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영화관 및 상영관 및 수요자 조사 선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갈 시민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부시 60주년 시 승격과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이뤄지는 ‘커뮤니티 시네마’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부스에는 ‘배려와 존중 마을이 영화관이 되다’라는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배포하며 정책으로 제안하는 시민영화제의 핵심 주제를 강조했다.

2. 시립시민극단 의정부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

부스에는 연극 포스터와 연극 단원들 사진, 연극제 트로피가 비치되어 있었다. 박수정 셀러는 의정부 시립시민극단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 교육을 뽑았다. 어린이와 청소년,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연극을 창작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책이 채택 된다면, 대외협력, 국제 교류 등의 측면으로 연극인들의 발전 적인 플랫폼을 형성해 활동하고자 하는 계획도 밝혔다.

3. 보행 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박진 셀러는 장애인 당사자이다. 셀러는 소설픽션 333에서 당시 장애 당사자들이 모여서 의정부 ‘구도심’ 지역의 공공 기관을 이용할 때의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 건물을 위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찾게 되었고,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진, 김미란, 김정임, 고영미, 김가영 셀러가 말하는 의정부 구도심 공공기관 건물에서의 보행에서의 불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예술의 전당의 경우는 진입로가 매우 좁고 경사가 급하다. 의정부 문화원은 입구가 인도로 되어 있고,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경사로가 없어서 진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부스에는 ‘공공문화시설의 최적 관람석 설치’ (이동 및 대피가 쉽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 슬로건이 담긴 문구 종이도 비치되어 있었다.

4. 의정부시 스타트업 지원조례

박재형 셀러는 의정부시 스타트업 지원조례 정책 아이디어를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셀러는 해결책으로 의정부 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자체 관내 일자리 창출, 경기 북부 관문 도시로서의 고효율 기업 양성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에 사는 청년 인구가 있기에 이런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교육을 통한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5. 위로와 공감에 있는 현대의 공간조성을 위한 ‘공존 공간 인증제’

정지영, 남선영, 이미숙, 노주현 셀러는 특정 세대의 출입을 막는 노 OO(키즈, 시니어) 존이 늘어나는 현상에 집중했다. 셀러들은 공존 공간 인증제를 통해 본인들이 식당, 문화 공간 등을 가서 ‘모든 계층이 공존이 가능한 공간’임을 확인한다면, 해당 공간에 대한 착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궁극적으로는 차별과 분리보다는 공존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다. 셀러는 ‘모든 생명체는 모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NO는 안 돼요.’라는 방문객이 써준 포스트잇 문구가 인상적이었다고 답변하며, 정책 부스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6. 의정부의 미래를 빛내는 청소년을 위한 의정부의 밤길을 밝히는 안전 통학로 환경 조성

장진혁, 김지유, 정다현, 정연서 셀러는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야간에 하고하는 학생들이 학교 앞이 어두워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의정부시 어린이 청소년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청소년을 위한 교통안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례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윤옥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안전과 관련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고자 학교 앞 어두운 사진을 청소년들이 직접 찍어 부스로 가져왔으며, 활동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안심하고 귀가 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와 호신용 리코더 펜을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나누어주며 안전 귀갓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7.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걸음,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서영진 셀러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폐현수막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셀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수거한 폐현수막을 공공용 마대나 줄넘기, 공공도서관 대출용 가방, 제일 시장 장바구니 등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8. 의정부 반환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이철진, 최경호, 박진균 셀러는 2019년 ‘반환미군기지 시민 뜻대로’라는 제정 운동 이후, 시민들이 반환 미군기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조례제정에 이어 가장 포괄적인 의정부시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정부,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의정부를 꿈꾼다면 반환미군기지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9.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김예인 셀러는 부스에 층간소음 부스와 관련된 기사와 통계 자료를 부착해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며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안내했다. ‘층간소음은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지자체가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정책 제안 이유를 밝혔다.

10. CRC의 역사적 가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례제정

이현승 셀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정부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이전한 미 2사단 본부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한다. 제안자가 작성한 정책 아이디어 추진 배경에 따르면, 군 생활 경험은 CRC 보존에 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 설립 후 관련 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현승, 박규민, 한규서 셀러는 부스에 군인 시절 사용했던 장갑과 배낭 등을 전시했고, 큰 하드보드지에 ‘꿈꾸는 CRC의 미래’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던져 방문객들의 의견을 받고 있었다. 시민들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박물관’ 등의 내용을 포스트잇에 남겼다.

11.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관련 조례 개·제정

올해 의정부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백만원실험실에 커피박을 주제로 참여했던 윤미경 셀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커피박 수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커피박을 점토, 비료, 연료 등 순환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례를 개·제정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부스에는 커피 점토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커피박으로 만든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를 비롯해 연필, 화분, 벽돌까지. 제안자의 부스에는 특히 유아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해 직접 점토로 만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관심을 가졌다. 윤미경 셀러는 ‘한잔의 커피를 끊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잔의 커피를 책임지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했다.

12. 일회용 컵 업사이클링 화분으로 변신

해당 부스에는 1L 페트병에 흙을 채우고 식물을 심은 화분이 곳곳에 놓여있었다. 목지연, 송영주 셀러가 제안한 <일회용 컵 업사이클링 화분으로 변신>이라는 정책 아이디어 제목과 같다. 목지연, 송영주 셀러는 “조례에는 ‘시장은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일회용 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 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조례에 따라 일회용 컵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화분을 만들고,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집,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 수업을 진행하며 환경 실천의 마음을 우리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기획자의 말

정책, 그 자체로 재밌을 수는 없을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정책마켓] 파트 워킹파트너

스무살이 협동조합 가을(김혜영)

지난 여름 정책페스타 준비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렸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의견을 제안해야 했고 나는 작년 정책마켓에서 반영되지 못한 정책안들을 떠올렸다. 그들에 대한 추모를 열어주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장된 정책안들을 위한 정책 장례식을 열어달라고 던져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책페스타 기획 업무가 나에게로 떨어졌다. 그 때가 7월 중순이었다. 페스타는 8월 말. 남의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나의 언행을 되짚어 보며, 세부 콘텐츠를 기획하기 전 페스타의 주요 과제를 먼저 도출해보았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페스타의 그림은 무엇인가.



‘정책, 그 자체로 재밌을 수는 없을까?’

해외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정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치와 정책은 그들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 소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멀리 하는 것일까? 심지어 우리 사회는 정치 혐오가 만연하기까지 하니 말이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흐름과 다각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힘든 탓일 거다. 일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기에 우리는 대화 속에서 깊은 삶의 철학을 나누고 사회의 이슈를 테이블 위로 올리기보다 음식으로, 술로, 게임으로, 문화로 일상의 일탈을 꿈꾸곤 한다. 그래서 정책으로 ‘페스타’를 여는 데 있어 정책을 놀이로 느껴지게끔 하는 부분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볼까?’, ‘정책은 왜 재미없을까?’, ‘논다는 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영역인데, 말도 안 되는

걸 해볼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물론 그 외에도 축제 슬로건인 ‘Everywhere, Everyone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전 정책마켓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의 여러 과제 또한 산재했다.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비교적 가볍고 재밌게 참여하는 축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판매자는 꼭 정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책은 꼭 판넬에 적혀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좇아 정책마켓은 자유로운 시장의 형태로, 전시에서 판매의 형태로, 라운드 테이블에서 정책 메뉴를 주문하는 작은 공론장의 형태로, 리뷰 이벤트와 건배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의 형태로 초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정책마켓 행사가 처음 운영된 건 2017년도 의정부 몽실학교에서다. 나는 2017년도에는 정책 판매자로,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정책마켓의 주 기획자이자 집값이교사로 함께 하였다. 당시 아동청소년 정책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 당사자의 정책 의제 발굴과 제안 과정이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슈와 도시의 의제를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직접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게 하고, 정책마켓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끔 돕는 것이 나의 주요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번 문화도시의 정책페스타에서는 시민들의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이 페스타 이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하였기에, 나는 그간의 정책마켓의 역할에서 벗어나 제안 정책을 어떻게 ‘판매’(전달)할 것인지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얹혀 있는 큰 규모의 행사에서 나는 정책 판매자보다 구매자에게, 정책 전시보다는 구매 퍼포먼스에 포커스를 맞추어 세부 프로그램의 퍼즐을 맞추어나갈 수 있었다.

다만 이슈와 문화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실효성과 재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며, 페스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 무겁지도 않아야 하면서,

동시에 ‘정책’ 페스타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도 않아야 했다. 페스타의 핵심 주체인 시민 정책 제안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했으며, 외롭고도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가 필요했다.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받은 느낌이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스타의 본질에 더 다가가 실험적인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워크숍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책페스타의 취지인 ‘문화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시도한 ‘정책경매’가 큰 역할을 해주었다. 경매에서 정책을 입찰하는 퍼포먼스는 시민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해당 의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역할을 약속하는 것이었기에 정책경매는 정책마켓과 더불어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책 경매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행사였고, 입찰자들의 태도와 참여도에 따라 현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좀처럼 그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긍정 회로를 돌리며 열심히 현장을 구성하는 것밖에 없었다. 다행히 행사는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다만 정책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 기획자 및 예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올해 시의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입찰이 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확대되거나 작은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면 어떨지 상상해본다. 조레가 더 필요한 제안이 있는 한편, 사업이 더 적절한 제안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다양하게 상상해보면 좋겠다.

정책페스타의 또 다른 프로그램은 ‘청소년 도시 메이커스’였다. 도시의 또 다른 주체인 청소년들의 참여는 시민 참여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정책은

시급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기보다 청소년다운 시선과 자유로운 상상을 이끌어 내보려고 했다. 현장 구성 또한 명절 가족 모임을 연상하게 하는 따뜻한 분위기나 진행자가 발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흡소형 형태 등 아이들의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을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였다.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아 모든 것을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엉뚱함과 기발한 상상을 놓치지 않고자 했으며 ‘모든 이 편한 세상’, ‘따뜻함에 눈물 비상’, ‘노벨상은 따 놓은 당상’ 등 상 이름에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정책페스타는 어디로 흘러갈까? 내년도에 어떤 역할로 정책페스타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시장 형태의 페스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테이블 공론장이 더 활성화되는 상상, ‘00라면’이라는 이름의 정책 제안 라면 봉지를 그리면 실제 라면으로 교환해주는 라면 가게 형태의 정책마켓을 혼자 상상해본다. 종량천, 백석천, 민락천 등에서 정책 소망 등을 띄우고, 정책 낚시터를 열고, 정책 나뭇배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페스타를 상상해본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으로 정책 트리를 완성해나가고, 정책 제안 양말이 걸려 있고, 시민들의 정책 구매로 트리의 불빛이 점차 밝아지는 모습으로 말이다. 정책 구매자들이 산타가 되어준다면 나는 이들의 썰매를 끌어주는 루돌프가 되고 싶다. 나는 한때 축제 기획자를 꿈꿨던 생활문화 기획자다.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일상의 변화에 더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페스타는 문화자치학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축제 이전과 이후까지 모두 연계된다. **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완성형 정책페스타가 문화도시 의정부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시민이 제안한 환경&평화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판매합니다.

1.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첫걸음,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서영진)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폐현수막 활용 아이디어
- 우산, 줄넘기, 경계선 로프, 앞치마
- 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이용
- 장바구니, 보조가방, 학생용 신발주머니
- 폐현수막 활용 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노인, 청년 일자리 창출
- 쓰레기봉투 대신 분리수거용 마대, 공공 환경미화원의 공공용 마대

2. 일회용 컵 업사이클링 화분으로 변신 (목지연, 송영주)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수집된 재활용품 세척, 소독, 건조 작업 후 화분으로 업사이클링
- 아파트 재활용품장에서 일회용 컵 및 화분 재료로 쓰일 재활용품 수집

3.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정 (김예인)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정
- 지원사업 근거 마련 후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권고
-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관련 의정부시 자체 사업 추진

4. CRC의 역사적 가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례제정 (이현승, 박규민, 한규서)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한미연합역사박물관 건립
- CRC 보존을 위한 조례 및 법령 마련
- 용산공원을 벤치마킹해 CRC를 역사 유산으로써 보존
- 대안 공법을 통해 CRC 토양오염정화 작업 (예: 송림 숲)

5.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윤미경)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업사이클링 기업 및 축사에 커피박 제공
- 자원순환 기본조례제정 및 자원순환 위원회 설치
- 찾아가는 커피박 수거차량 운영으로 커피박 수거 원활화
- 카페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커피박 모으기 및 체험 행사 기획
- 커피박 점토화 기계 구입 및 임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 '커피 찌꺼기'

6. 의정부 반환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이철진, 최경호, 박진균)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의정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활용 계획에 있어 시장화를 지양하고, 시민 참여형, 공공성을 강조
-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추진
-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마련으로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지원 및 개발 방안 마련

시민이 제안한 예술&문화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판매합니다.

1. <시립시민극단 의정부>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 (곽수정)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민관이 협력을 통해 시립시민극 의정부의 토요 상설무대 지속적 운영 및 이윤 창출
- 13개 각 동 강당 개방으로 평일 저녁 및 주말 연극 연습 공간 확보
- 일본 시바타시와 교류연극제 추진으로 대표연극 간 상호 교류 활동 활성화
- 시립시민극단 의정부 주관으로 네트워킹 파티, 간담회, 포럼, 세미나 등 개최

2. 의정부 문화시민-문화예술인 금융 네트워크 - 유캔 U_CAN (김성구)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온&오프라인 금융점포에서 아트스팟과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상품 가입 유치
- 문화도시의정부와 시민, 기업,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연결하는 '의정부 형 휴먼&금융 네트워크' 창설
- U-아트펀드(콜라보) : 지역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가입하고 유치하는 펀드 상품 (예 - 하정우작가X부대찌개 아트프로젝트 콜라보)
- U-아트바우처카드(멤버십카드) : 연회비 5만 원으로 의정부 내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월별 초대. 의정부지역 문화공유공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연회비 10만 원으로 지역예 술가와 시민 간 1:1 매칭 서비스 제공
- U-아트브릿지통장 : 지역문화예술 후원금 조성 및 관련 사업 후원이 가능한 공익형 자유 적금상품으로,우대금리 적용 및 분기별 문화예술행사 초대 혜택 제공
- U-아트래더(사다리) : 지역 기업이 예술가를 발굴 및 지원하는 기부, 협찬,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기업 홍보대사 및 굿즈개발 매칭사업으로의 가능성 함께 모색

3. 배려와 존중, 선진시민을 위한 의정부 시민영화제 개최 (임효준)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영화제 준비위원회 결성
- 의정부 시민영화제 개최
- 시민단체 및 관공서, 동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의정부 내 사회 문제 토론 및 공론화
- 의정부 내 영화관 또는 상영관이 될 만한 공간 인프라 조사

4. 청년 문화동행 촉진을 위한 청년 문화바우처 지원 정책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문화예술분과 강정남, 이유정, 황다원)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지역화폐와 연계
- 문화바우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대
- 의정부시 청년 대상 문화바우처 형태로 연 20만원의 문화비용 지급

5. 의정부 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지역 바우처 (성민희)

정책 아이디어를 팝니다.

- 의정부 예술가 활동 현황 조사
- 의정부 예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정부 관내 지역상점과 예술가 창작활동 연계
-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을 지원
- 의정부시 예술가로 활동하며 어려운 점 등 청취하는 자리 마련

6. 나로 시작하여 우리가 되고 모두가 되는 의정부시 공예문화 (정희은)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시민단체 내 공예분과 활성화
- 공예문화거리 및 공예문화공원 활성화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공방 창업지원
- CRC 공간을 활용한 전문 공예, 미술 문화 전시회 기획
- 학교 . 노인생활공간 내 전문적인 공예수업과 AI 기술을 동반한 스마트 공예수업 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수강자를 위한 전문 교육 공간(공방 등) 제공
- 공방 체험 및 공예품 판매에 문화누리카드 의정부사랑카드 혜택 확대
- 시민들의 공예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예전시문화축제 연 3회 정기적 활성화

시민이 제안한 안전&지원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판매합니다.

1. 보행 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박진, 김미란, 김정임, 고영미, 김가영)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의정부문화원 최적 관람석 설치
- 북관대접비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 설치
- 의정부문화원 입구 - 인도 사이 경사로 설치
- 예술의 전당 차도- 인도 사이 경사를 완만히 보수해 보행권 확보
- 문예 극장(하향식) 맨 뒷자리 휠체어 구역 지정 및 전방 안전바 설치
- 정문부장군묘 입구, 송산사지 비포장도로에 벚짚 깔개 및 나무데크 설치

2. 의정부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조례 마련 (정홍권, 김정자, 박영순, 이한경, 장길환)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돌봄 로봇 활성화
- 디지털 약자를 위한 조례제정
-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 시니어 디지털 매체 1:1 코칭 교육
- 의정부시 디지털 봉사팀 조성 및 지원
- 보급형 스마트폰 및 교육용 키오스크 지원

3.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마련 (조혜영)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시민의 소통,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이후 시민 간 갈등 요소 파악 및 시각화된 자료 제작

4. 안전한 의정부를 위한 가로등 인식 III 활용방안 (김선호)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가로등에 360도 인식 띠 부착
- 가로등 근처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인식 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도록 특정 위치(2.3m)에 설치
- 가로등 인식 띠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색채, 폰트, 크기 등 개선
- 인식 띠에 신고 QR 코드를 부착해 다양한 위험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5. 의정부의 미래를 빛내는 청소년을 위한 의정부의 밤길을 밝히는 안전 통학로 환경조성 (차세대위원회 안전복지분과 장진혁, 김지유, 정다현, 정연서)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전봇대에 야광 스티커 부착
- 통학로 일대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보행 안전 확보
-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귀가 안전 동행 서비스 시행 (같은 성별의 시니어 선발)
- 청소년 주요 통학로에 가로등을 일정 간격으로 추가 설치

6. 의정부시 스타트업 지원조례 (박재형)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지역 내에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해 인적 자원 네트워크 및 대기업 유인 요소 마련
- 의정부시 스타트업 지원 조례제정으로 관내 기술창업 촉진 및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 추후 기술집약형 기업 유치에 활용할 가능성 모색
- 조례를 근거로 관련 사업 추진, 소자본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 유치

시민이 제안한 세대지원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판매합니다.

1.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 (이선주, 최의흔, 고순옥, 최정후)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공공 수의사 고용
- 반려동물 돌봄을 도와줄 인력 파견 대책 수립
- 의정부 내 돌봄 취약 가구의 반려동물 등록 실태 조사
- 홀몸 어르신 사망 후 남겨질 반려동물의 처리 대책 마련

2. 모두의 놀이터 - 아이 돌봄 정책 (의정부 시민대학 온마을지킴이 학과 정성희, 정영화, 박은희, 안은숙, 최경화)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모두의 놀이터 돌봄 공간 운영
- 부모 조합원이 이용료를 지불하고, 한 달에 한두번 돌봄에 직접 참여 형태로 돌봄 공간
- 부모들에게 필요한 교육 시행 및 공동체 활동 기획
- 돌봄 선생님 + 부모 + 아이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 운영
- 돌봄 공간에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

3. 의정부시 청소년 통합네트워크 구축 (차세대위원회 지역연계분과 황헌수, 최부경, 장지은, 이관우)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청소년시설 이용 통합 시스템 구축
- 청소년 커뮤니티 (동아리, 학생회 등) 플랫폼 확대
-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관 청소년시설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기관별 장점 극대화 및 약점 보완

4. 의정부시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개최 (김용우)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치매 예방 인지 똑똑, 금연, CO 측정, 마음 건강, 치아 건강, 손 씻기 등 건강 정보교육과 체험 행사 확대
-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개최로 시니어 대상 건강에 대한 정보 공유
- 기초검진(혈압, 혈당, 체성분), 체력 측정(유연성, 평형성, 협응력, 상하지근력, 심폐 지구력, 집중력, 순발력), 신체 외적 평가(균형감, 걸음걸이, 건강미, 장기) 검진 시행

시민이 제안한 공간&거리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판매합니다.

1. 공공형 어울림 청년 세어하우스 조성 방안 (주지희)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청년 동아리 모임 활성화
- 노후 빌라를 시에서 구매 후 청년들의 세어하우스 주거단지로 개조
- CRC 내 장교 숙소, 사병 숙소, 카페테리아, 클럽 개조
- 청년 주거단지 내 공유주방 아이디어 (마을협동조합 식당과 연계)
- 청년 주거단지 내 소규모 거점 시설(마을 카페, 마을 협동조합 식당, 돌봄 시설,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모임 공간, 사무공간) 유치 및 마을 주민에게 개방

2. 의정부시 청년 문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 일부 개정 (김경민, 이규현)

정책 아이디어를 겁니다.

- 청년축제 브랜드 발굴
- 청소년 커뮤니티 구축
- 청년 문화의 거리 활성화
- '청년이 즐길 수 있는' 의정부시 이미지 강화
- 청년 창업가와 협업해 청년 주도적인 축제로 개선
-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투자유치, 직접적 금융 지원 등 지원 형태 다양화
- 청년의 날에 행복로에서 규모가 큰 청년축제 진행 및 브랜드화

3. 의정부 가족 소통 공간조성 (최은희)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 개최
- 가족 소통 공간 온.오프라인 홍보
-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어른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디자인
- 가족 구독 모델 도입으로 가족 소통 공간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 지역 기업, 기관,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소통 공간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 디지털 디톡스 활동을 행사화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4. 소풍길 맨발 걷기를 위한 조례제정 및 환경조성 (장정화)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맨발 걷기, 황토길 코스 조성
- 맨발 걷기 조례제정을 통해 산책길 조성 근거 마련
- 맨발 걷기와 관련된 이벤트 (지도, 스탬프) 활성화
- 부용산 삼림욕 길 플로깅대회를 열어 맨발 산책로를 시민 주도적으로 조성

5. 일과 후 안전한 운영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김세현)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권역별 생활문화 공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의정부시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지정을 승인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례를 근거로 예산 편성과 실태 조사(잠재적 수요공급 분석)
-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협치워크숍 등 조례제정을 위한 공론장 운영

6. 의정부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자유 공간 확대 (차세대위원회 임원진 함운서, 이시은, 권한나라, 윤성현)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청소년 자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확대
-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 문화 여가 공간 설치 및 상시 운영

7. 재개발로 인한 시공간적 마을 방치, 슬럼화 해결방안 마련 예술로 가꾸다. - 닳마을운동 사랑방모임 (강현욱)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닳마을 운동 사랑방 모임 등 마을 커뮤니티 강화
- 의정부시 경관 조례제정으로 경관가이드라인 구축, 슬럼화된 구역 관리 대책 마련
-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제정으로 유희공간 개발
-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정으로 공동주택 효율적으로 관리

8. 위로와 공감에 있는 확대의 공간조성을 위한 '공존 공간 인증제' (정지영, 남선영, 이미숙, 노주현)

정책 아이디어를 합니다.

- 노 키즈 존, 노 시니어 존과 반대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의정부시가 인증 및 홍보
- '공존 공간 시민 서포터즈' 모집해 다양한 '공존 공간'을 발굴
- 의정부사랑카드를 통해 공간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혜택 제공

우당탕탕, 입사 10일 차 신입 담당자의 정책페스타 즐기기!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자치팀 **이은풍**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자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풍**입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난 8월에 진행된 문화도시 의정부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입사한지 고작 10일 차, 신입직원인 제 게 있어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정말 큰 벽 같았습니다. 다들 정책페스타를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입사 10일 차의 시선에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보려 합니다.

문화자치팀에 커다란 신입직원 등장

먼저 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8월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입사 후 문화 자치팀에 배정받았습니다. 문화자치팀은 문화자치학교,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333문화살롱, 횡단자캠프, 협업레스토랑, 문화도시 R&D 연구지원사업 등 문화도시 의정부만의 색깔로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팀입니다. 이전부터 문화자치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고 실무자로서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는데, 문화자치팀에 배정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사와 팀장님과 사수 이예진 주무관님이 신입인 저를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특히 사야팀장님은 제가 크다고 좋아하셨어요! 오자마자 현수막을 달아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손쉽게 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셨죠. 저 스스로 크다고 좋았던 적은 없지만 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근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것도 연달아서, 살려주세요.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제 인생 첫 직장입니다. 그래서 야근이란 것을 처음 해봤는데요. 전국에 계신 직장인 분들 존경합니다. 안 하던 걸 하려니 매우 힘들었습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낸 행사였습니다. 핵심인 정책마켓과 더불어 포럼, 로컬마켓, 특강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들어간 만큼 신경 쓸 부분이 많고, 정신 없이 바빠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하 다목적실에 설치되는 부스들뿐만 아니라 전시장, 국제회의장, 소극장 로비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곳곳이 정책페스타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부스, 전시품 등 다양한 것들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며 신기했고 새로웠습니 다. 현장을 보면서 문화 기획에 대해 몸으로 부딪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화자치팀은 정말 한 몸처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었지만 실제로 총괄을 맡고 진행하는 팀원들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나도 저런 문화 기획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께서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쏟고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걱정과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노력만큼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시장? 아니, 정책마켓!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첫째 날에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민들이 찾아오시기에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선풍기부터 틀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마켓 부스뿐만 아니라 야외부스도 엄청 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열심히 날렸습니다. 우당탕탕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책페스타에서 맡은 역할은 정책마켓 부스 서브 운영이었습니다. 정책마켓은 시민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스들로 구성되었고,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의 꽃이 된 사업입니다. 행사장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 운영까지, 정책마켓의 '마켓'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기획자인 '스무살이협동조합'과 센터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정책들이 적혀있는 전단지, 과일 모형, 영수증, 우유 바구니 등과 같이 마켓을 연상시키는 물건들을 부스에 배치해 정책마켓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도 계셨을 정도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 스가 되어 다행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열정적으로 찾아주신 덕분에 정책마켓이 빛났습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의 피날레, 정책경매 땅땅땅!

둘째 날에는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의 피날레, 정책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정책경매, 정책을 사고판다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정책마켓의 정책 중 10개를 선정하여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소극장 로비에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입찰자로 참여해 주신 시장님, 시의원님,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도 경매를 진심으로 즐기고 계셨습니다. 정책경매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화도시 의정부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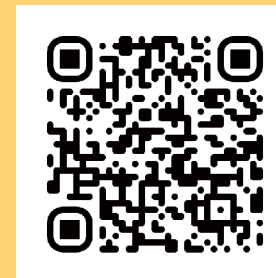
특별한 행사였어요. 시민들의 쉬운 접근을 위해 고민하고 정책경매를 기획하신 기획자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가 마무리될 때, 입사 이후 처음 겪는 행사라서 그런 걸까요? 가슴이 뭉클하다고 해야 하나, 성취감 같은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런 문화 기획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기획을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기대되는 저는 우당탕탕 햇병아리 문화기획자입니다!

글을 마치며! 사랑해요! 문화도시 의정부!

마지막으로 입사 10일 차인 제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준 행사였습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전에는 문화자치를 개념적으로는 이해해도 마음에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겪으며 우리 도시를 바꾸는 정책을 제안하고 활동하는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이게 바로 문화자치 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자치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힘이 잘 드러나고 표현되었던 사업이 바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때도 부디 저와, 그리고 문화도시 의정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도시 의정부는 시민분들의 '문화자치'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Everywhere X Everyone 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프로그램별 소개 바로가기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생생한 현장 바로가기

PART 3



우리 도시의 변화와 움직임,

협치워크샵
궁짝궁짝

우리 도시의 변화와 움직임,

합치워크샵 공짜공짜 이야기



기간 2023년 9월 ~ 12월
내용 합치워크샵 15회 진행
성과 누적 참여자 433명
조례 발의 7건, 사업 반영 5건

문화자치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청년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청년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의정부에서 계속 살고싶고, 같이 살아갈 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민정책제안’이라는 단어가 좀 의아할 때도 있는데요. ‘원래 정책은 시민이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도시와 시민을 위해 계발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행정이 시민을 대변할 때 보기 힘든 부분, 혹은 외면했던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제안하고 소리낼 수 있다는 점이 ‘시민정책제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장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막막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일상에서의 불편함은 사실 크지만 정작 그걸 이야기하라고 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죠. 불편하다고 생각했어도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불편했던 점을 떠올리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알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문화자치학교를 선택한 건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지 배우고, 각자가 가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과정은 개인의 불만에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시 문제로 이끌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해결책이나 개선 방법이 있을지 다른 이들과 논의했기에 다음에 설득력 있는 시민정책제안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문화자치학교를 이끌어주신 분들이 사업 혹은 조례 등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했기에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정책마켓은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그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이 비유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현되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마켓이라는 공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각 분야의 시민들이 시민과 행정을 대상으로 소리 높여 자신의 제안을 어필하는 과정을 볼 때는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민자치, 문화자치라는 단어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숙의워크숍 과정이었습니다. 정책 제안의 과정이 의미 있으려면 결국엔 시민이 자신의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효능, 효용을 느끼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각 매칭된 분들과 논의하고 나아가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과 모여 정책의 현실화 전에 한 번 더 숙의를 거치는 과정은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에게 보람과 함께, 그 정책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문화도시로 가는 과정에 이러한 정책 제안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도시라는 것은 비단 예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안에 도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도시에서 재밌고 즐거운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묻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자치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

: 후속공론장 관련 집담회

일시	2023년 12월 2일(토) 16:00 ~ 17:30
장소	빛뜨레커피
참석자	환경관련 정책제안자 윤미경(윤), 목지연(목), 서영진(서), 문화자치 협력파트너 따노(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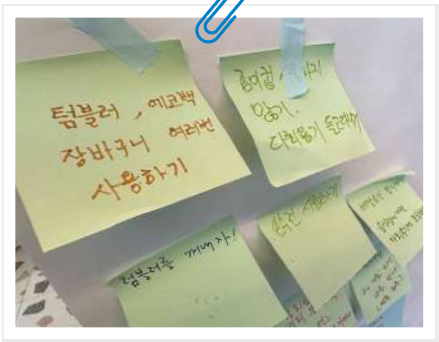
문화자치가 문화자치학교와 시민 정책제안, 정책페스타와 정책마켓, 후속 공론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은 저는 시민정책제안으로 처음 결합했어요. 문화자치학교는 저에게는 접근이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시민 정책 제안으로 참여했을 때도 제안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책페스타를 준비하는 과정 에도 문화재단과 따노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페스타 끝나고 그게 끝일 줄 알았는데 공론장을 한다고 하고 의원을 만난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저는 좋았어요. 조례가 되건 안되건,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유를 보완해서 되게 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 저는 조례가 뭔지도 잘 모르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공론장은 참 좋았어요. 왜냐면 같은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정책마켓 때는 내 부스 운영한다고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오늘 공론장이 참 좋았어요.

서 문화자치학교에서 조례 찾는 법, 조례의 의미 등을 배울 수 있었던 게 저는 좋았어요. 작년에 윤이 좋게도 제 정책이 조례로 발의가 되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사실 조례나 정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제안이 의원을 만나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 해 보니 이제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풀어가봐야 하겠구나' 하는 방법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 겠더라고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봐야 할까요? 내년에 또 한 발자국 더 발전 해야 할테니까요.



은 이번에 만난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주제를 알게 되었냐고 묻더라는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이름을 올려서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누구랑 누구랑 결탁 해서 했단가 친분이 있어서 특혜를 줬단가 하는 오해도 줄어들 것 같아요. 마켓을 열었고 거기서 설명을 듣고 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공론장을 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행정이나 의회에 대한 편견을 깨는 활동이 되기도 했구요.

목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 있지요.

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경매를 했으 니까 끝까지 앉아계시기도 했고. 점점 이런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올해 시의원들과 만나는 자리도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네네.

서 시민들이 스스로 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분명 시민의 힘이 커지고 있는 건데 시민 들은 정작 잘 느끼지 못하니까요.

목 맞아요. 저도 작년에 서영진 선생님, 올해 윤미경 선생님이 제안한 정책이 조례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조례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진짜 대단한 건데.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려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내면 좋겠어요.

은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려내야지. 다들 열심히 했고, 사실 조례가 되건 되지 않건 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 시민들의 노력이 조례나 사업이라는 결과가 된다면 잘 알려내야지요. 사실 정책이 잘 와닿지는 않으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자치영역이 연초에 시작될 때
딱!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시에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의회, 행정 차원에서 표창을
줄 수 있어요. 문화도시 각 영역에서
공적조서를 올려서 공식적으로 표창을
받는 구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문화자치는 결국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조례 공작단 같은 거
해볼까요? 경험이 있는 우리가 5분대기조
처럼 딱 조직되어 있다가 조례가 필요한
주제가 생기면 상시적으로 만나서 논의
하고 의원과 소통하면서 조례제정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요.**

꼭 간증하듯이, 시민이 직접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지, 제정할지. 뭐가 더 효과적일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서 그래서 정책을 제안해서 그것이 조례가 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포상이나 인정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 정책이 조례가
되어서 표창을 받고 싶다는 게 절대 아니고 노력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받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은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관련 기사에도 꼭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라는 딱 한 줄이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올해 다 이 지점이 잘 안
되는 게 아쉽긴 해요.

은 저는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문화도시
사업구조 안에서. 예를 들면 저는 333 문화살롱이 첫 경험
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실험실로 올라가고 이번엔 정책마켓
으로 가고 공론장까지 온 건데 이 과정이 저에게는 단계처럼
느껴져요. 저는 문화도시의 수혜자거든요. 판 깔면 지원해줄게!
이런 거지요. 제 돈 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첫 단계로
문화자치학교가 저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333이나 실험실에서 문화자치학교로 넘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해요.

서 동의해요. 앞에도 말했지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는 333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조례가 필요한 것이 보여요. 구구단은 특히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보니 뭘지 조금 알겠고
그것이 계속 학습되고 경험이 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은 일 또 만든다 또! 근데 그런게 보여요. 그럼 언제든지
발의될 수 있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화도시 의정부의 지속성,
시민들의 활동지속성이 가능할까요?**



오늘 모인 세 명은 각각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정책마켓에 참여했던 정책제안자들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환경공론장을 준비하고 운영한 직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환경과 관련 한 주제로 열렸기에 일회용품 없는 행사를 준비해보자고 의기투합했고 그 흔한 현수막, 배너 하나 없이, 다과도 포장없고 일회용품이나 종이컵 없이, 각자 가지고 온 텀블러에 직접 제조해서 먹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공론장을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있는 세명의 정책제안자가 있어 의정부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겠구나, 라는 생각. 세 명의 환경 주제들이 펼쳐나갈 문화도시 의정부 내에서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후기를 공유하며 마무리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시의회에 전달하여 우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 하나쯤, 내가 어떻게 정책을 바꿔, 라는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시민이 되리라 마음먹은 계기가 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 박00님

“의정부 시민이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고 환경보호 선배님들의 일상의 실천과정을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 따라하고 싶다는 동기도 얻어왔습니다” - 김00님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한 함께 의견 나누며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좋습니다.” - 박00님

칼럼

일상의 불편을 긍정적인
변화로 바꾸는 시민의 힘

: 시민 주도의 [문화자치]
구현의 의미와 가치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희진
(문화자치학교 사업반 멘토)



‘문화자치’는 용어에서 의미하듯 ‘시민참여’를 기본 전제로 한다. 또 시민참여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문화정책을 결정과 시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 제안제도가 도입된 후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20여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영역과 내용도 풍부하고 다양해졌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책과 사업, 예산 등에 있어서 민간의 시민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기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시민 누구나 사회변화 주도의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5월 ‘2023년 문화자치학교’에 참여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아요”라는 제목으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도시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문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문화자치학교에는 도시를 바꿀 정책의제를 가졌거나, 조례 제안 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 참여했다. 필자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다듬어 공론화하기 위한 ‘사업 제안형’ 과정을 돕는 역할로 함께 했다.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심화시키거나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사례 등을 찾아 제공하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장소나 사람들을 연결해 드리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나왔고 관련 사례를 찾아 정리하며 아이디어를 보완해 나갔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로등 번호띠 설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 어떤 참여자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나 축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의정부 관내의 공실이나 유휴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 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 강화된 인정(보상) 체계 제안, 아이들의 문화공간 확보 등 참여자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제안은 다양했고 풍성했다.

제안한 아이디어는 개인의 불편과 필요에서 시작했지만,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문화 향유, 지구적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발전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제안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은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현상이었다.

이것이 일상의 불편을 긍정적인 변화로 바뀌는 시민들의 힘이 아닐까. 정리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여러 과정이 남아있겠지만, 시민 주도의 문화자치

구현을 위한 걸음은 참여자들에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을 포함하는 것은, 시민을 정책을 향유하는 ‘정책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제안하는 ‘정책 생산자’로서 인식하고 정책 과정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세워나 가는 과정이다. 더욱이 ‘문화자치’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화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 주권을 회복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빨리 알릴 수 있는 가로등 번호띠가 보이길 응원한다. 누구나 참여하길 원하는 신나는 영화제나 축제가 열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그리고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환대받는 환경 실천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기획기사] 시민이 함께 만든, 의정부를 변화시킬 정책들

시민이 제안한 정책, 조례로 발의되어...

문화도시 의정부, 시민이 제안한 정책 실현화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통해 선보인 시민 제안 정책 30건 중
7건이 조례로, 5건이 사업 구상 단계에 접어들어



법정 문화도시 1년 차를 마무리하는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8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화 축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책페스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었던 「정책마켓」은 마트에서 장을 보듯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고파는 시장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환경·평화, 예술·문화, 안전·지원, 세대·지원, 공간·거리 등 5개 부문에서 총 30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펼쳐졌다. 정책 셀러들은 열정과 애정을 담아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홍보하였고, 정책상품을 구매하는 시민들도 즐겁게 참여하며, 공감하는 정책에 의견을 보태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정책경매’는 정책을 경매에 부친다는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였다. 정책마켓에서 판매 되는 30개의 정책 아이디어 중 10건이 경매에 상품으로 공개되었다. 경매 입찰자로는 의정부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가하였다. 입찰자들은 약 300만 원의 가상화폐를 받고, 해당 화폐로 경매를 진행했다. 10개의 정책상품이 모두 낙찰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입찰자들은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과 추후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마음을 담아 기념사진을 남겼다.

정책페스타 이후, <협치워크샵 ‘공작공작’>을 통해 ‘정책경매’로 매칭된 정책제안자와 정책입안자의 만남을 추진 했다.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시의원, 시 공무원, 유관 기관 관계자와 시민들은 함께 정책을 논의했고, 시민 제안 정책 중 7건이 조례로, 5건이 사업 구상 단계로 접어드는 쾌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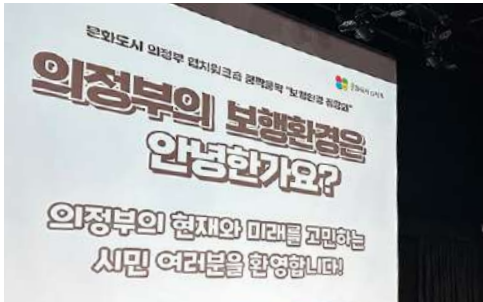
정책경매 이후, 9월부터 약 3달 동안, 정책을 숙의하기 위한 여러 논의의 장이 추진되었다.



강현욱 씨의 정책 아이디어 ‘재개발로 인한 시공간적 마을 방치, 슬럼화 해결방안 마련, 예술로 가꾸다. - 닳마을운동 사랑방모임’에 대하여, 의정부문화원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추후 사업 연계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진 씨의 아이디어 ‘휠체어 사용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제정 제안’은 의정부시의 보행 환경과 보행권에 대한 시민 공론장으로 이어졌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보행안전 시범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통과되었다.





김선호 씨의 아이디어 '안전한 의정부부를 위한 360도 가로등 인식 띠 활용방안 마련'은 시 담당 부서와 만남 후, 현재 문화도시 사업 등을 활용한 시민 캠페인부터 단계적 과정을 거쳐보자는 논의로 발전되었다.

김경민 씨가 제안한 '청년문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제안'은 '의정부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철진 제안자의 '의정부 반환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은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추진 중이다.

서영진 씨가 제안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걸음,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정책은 다른 환경 의제들과 함께 의정부시 환경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열었다. 환경, 재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 30여 명이 자율적으로 모여 열정 가득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세현 씨가 제안한 정책 '일과 후 안전한 운영을 위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최은희 씨가 제안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 정책에 대하여, '문예숲 커뮤니티 센터' 등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며 기능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가는 중이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차세대위원회 안전복지분과(김지유, 장진혁, 정다현, 정연서)가 제안한 '청소년 안전통화로 환경 조성' 정책은 '청소년 안전통화로 조례 제정'에 대한 속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년 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승 씨의 정책 아이디어 '한미연합의 도시 의정부를 위한 CRC 내 한미연합역사박물관 조성'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 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며 구체화 된 제안서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문화예술분과(강정님, 이유정, 황다원)의 아이디어 '청년 문화동행 촉진을 위한 청년문화바우처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의정부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 숙의를 위한 제안자들의 지속적 논의의 장이 추진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윤미경 제안자의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정책은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논의로 발전되고 있고, 목지연 제안자의 '일회용 컵 업사이클링 화분 으로 변신' 아이디어는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과 연결되었다.



의정부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시민과 함께한다. 도시의 일상을 바꾸는 실험, 나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시민 연구, 도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 들의 아이디어를 응원하고, 지원한다.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정책, 법정 문화도시 1년 차의 성과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4년을 '머물고 싶은 도시, 문화도시 의정부'로 만들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한편,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 대한 시민이 제안한 정책 및 조례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문화도시지원센터 카페 (<https://cafe.naver.com/ccityujb>)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AL

마치며

마무리 말

문화도시 의정부, 우리 내년에도 모이고, 떠들고, 공감해요!

문화도시 의정부는 올해 법정문화도시 1년 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9년부터 수많은 의정부 시민들은 도시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적인 해결을 고민해 왔습니다. ‘문화도시 오픈테이블’로 시작된 ‘구구소회(시즌 1, 2)’, ‘와글와글’, ‘도란도란’까지 81번의 이야기 판이 열렸고, 1,100여 명의 시민들과 의정부에 대한 수다를 모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해요.”

“사람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문화도시가 선정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동네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에서도 문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해요.”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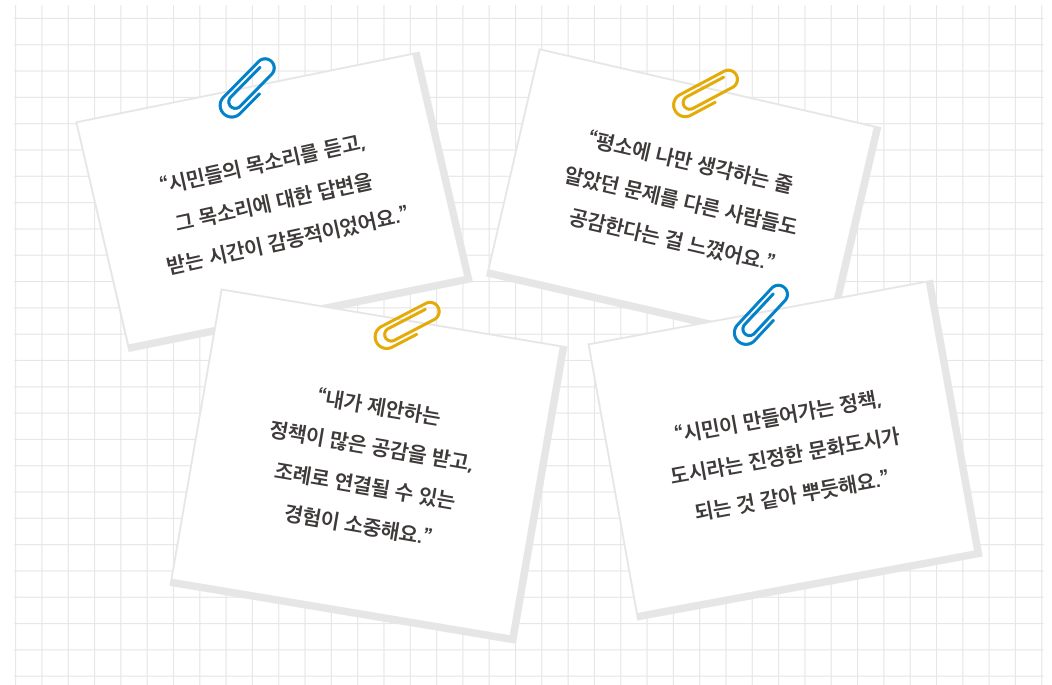
“군사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의정부의 아픈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작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재미있는 문화 행사를 만들고 싶어요.”

“문화 공간이 지역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로 지정된 1년 차,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해소되지 못한 채 바라는 의정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100만원 실험실’, ‘문화도시실험실’, ‘사이공간’, ‘빼빼마을 프로젝트’ 등 자발적인 시민들, 예술가들의 실험으로 우리가 바라던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화자치사업을 통해서도 우리의 바람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꿈꾸는 도시를 향해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꾸준히 이야기하고, 서로 힘을 모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이 도시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올해 문화자치사업에는 10대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 성별, 직업, 삶의 지향점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서로 공감을 나눴습니다. 혹자는 ‘언제까지 계속 이야기만 해야 하느냐’, ‘이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변화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같이 이 도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목소리 내고, 공부하고, 공감하고,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도시 의정부가 만들고 있는 ‘문화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모이고, 떠들고, 공감하며 ‘문화자치’가 당연한 도시, 문화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발걸음들이 모여 5년 후, 의정부는 새로운 모습 이지 않을까요?

부푼 기대로 앞으로의 5년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매거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감동, 노력이 담겼습니다. 문화도시 의정부의 ‘문화자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글을 마칩니다.

주최·주관 |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후원 | 의정부시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 의정부문화재단

전화번호 | 031-850-5122~5127, 5181~5184

홈페이지 | cafe.naver.com/ccityujb

기획 및 편집 | 문화도시지원센터 이예진, 마을연구소 '들'

디자인 | 홍지현

발행일 | 2023. 12. 22.

ISBN | 979-11-982014-2-3(03300)

©의정부문화재단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의정부문화재단에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791198 201423
ISBN 979-11-982014-2-3

비매품/무료
03300

